

스테레오 비전

목차

기획의 글	스테레오 비전	송고은	4
편집의 글	해석과 기록, 협업과 합성	이한범	12
공동 창작 워크숍	소소하고 세세한 이야기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	18
이민경, 조영주, 한승민	— 변신과 변화 — 작품 소개 — 작가 노트	손혜민	24 37 46
김은설, 전보경, 정지혜	— 공기가 귀가 되고, 귀가 눈이 될 때 — 작품 소개 — 작가 노트	유소윤	50 63 72
박찬별, 손명희, 윤지영	— 느린 편지 — 작품 소개 — 작가 노트	이한범	76 95 110
김하경, 김환, 최일준	— 별화점_대화, 관계 그리고 교감의 장치 — 작품 소개 — 작가 노트	신현진	116 131 142
기획 전시			145
기획 후기		송고은 오다인	166 172
타임라인			179
작가 소개			183
에필로그			189

스테레오 비전

“쥬발, 만약 내가 당신을 칼로 토막 내서 스튜를 만든다면, 당신과 스튜는 서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먹는다면 우리는 함께 공감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맑은 것이 없고 누가 누구를 먹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 로버트 A. 하인라인, 『낯선 땅, 이방인』(1961) 중에서

송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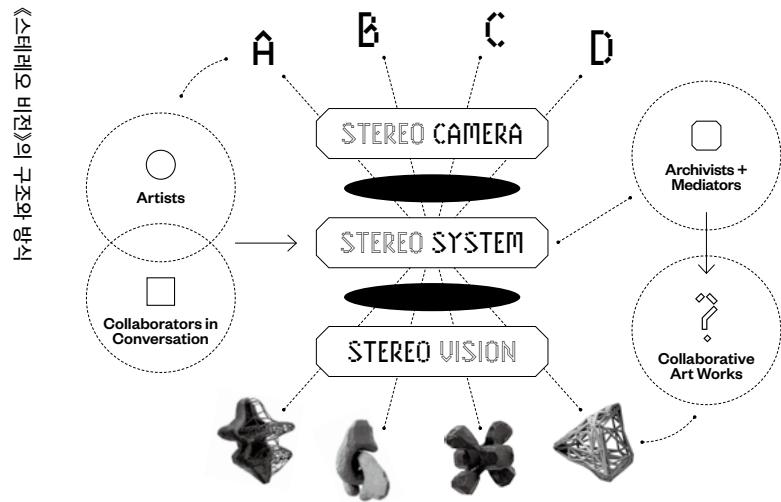
스테레오 비전(stereo vision)은 우리의 눈을 흉내 낸다. 이것은 한 대상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평면 이미지를 조합하여 3차원의 깊이를 감각하게 하는 일종의 ‘로봇 눈’이다. 내가 스테레오 비전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로버트 A. 하인라인의 『낯선 땅, 이방인』을 통해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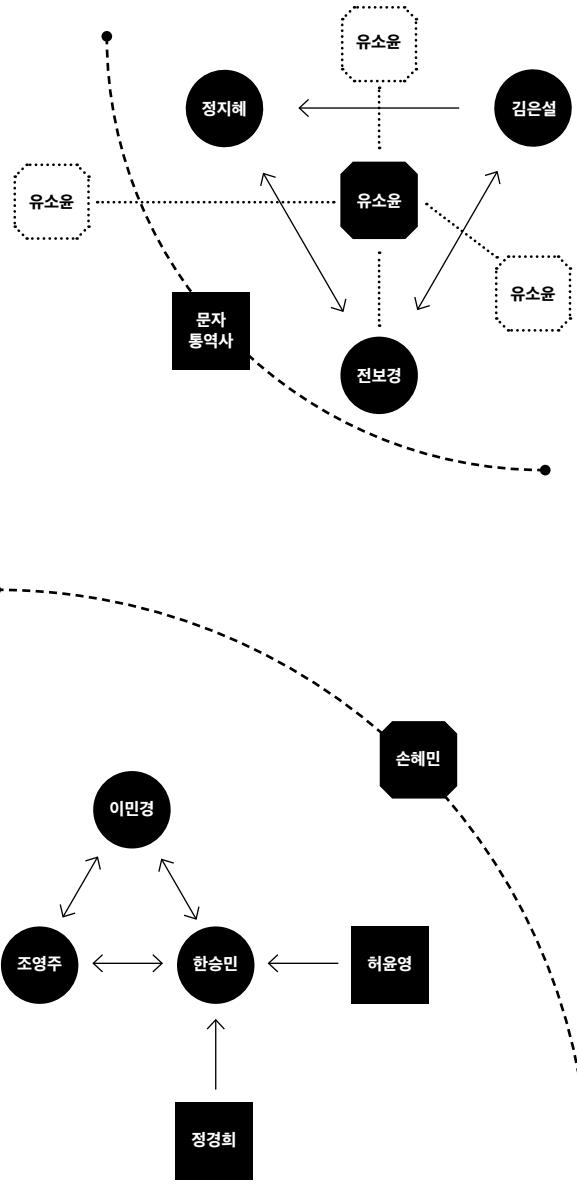
이 소설은 화성에 도착한 지구인과 화성인 사이의 여러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언어를 포함한 모든 체계가 전혀 다른 등장 인물들은 서로간의 대화에서 당혹스러운 순간을 자주 맞이한다. 가령 화성어의 단어 중 ‘공감’에 대해 공감하는 것은 지구인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것인데, 화성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 ‘공감’이란 단어가 지구의 언어로는 ‘두려움’, ‘사랑’, ‘증오’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화성인은 공감이 ‘마시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들은 신체와 죽음이라는 개념 역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이 개념의 차이에 따라 화성의 예술 역시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그것은 바로 “육체를 가진 자”와 “육체를 이탈한 자”的 예술이다. 이 구분에 따르면 예술은 죽음과 삶,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가르는 것일까? 만일, 화성의 예술이 이런 식으로 구별된다면 지구의 예술은 어떻게 나뉠 수 있을까?

평평한 시점을 모아 입체적인 시각을 만들어내는 스테레오 비전의 체계는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이번 장애·비장애 예술인 공동 창작 워크숍 《스테레오 비전》의 접근 방식과 유사한 구조다. 눈과 뇌의 시각 피질에서 일어나는 즉각적인 현상을 인공적으로 재현해내기 위해서 여러 기술적 단계가 필요하듯, 이미 구축된 환경 안에서 생성되어야 하는 예술가 사이의 협업은 일상적인 상황보다 더 세밀한 조건들이 수반되어야 했다. 창작 활동을 매개하고 관찰, 기록하기 위해 제안된 워크숍의 각 과정은 마치 한 대상을 여러 대의 카메라로 포착하듯 예술 창작 과정과 그 결과물에 대한 다층적인 시선을 담아냈다.

잠실창작스튜디오를 중심으로 금천예술공장, 서울무용센터, 신당창작아케이드 등 서울문화재단 산하 4개의 창작공간 전/현 입주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이 워크숍은 장애·비장애 예술인 사이의 활발한 예술 창작 생산을 지원한다는 목표가 뚜렷하다. 그러나 이런 도덕적 실천이 주요 동력이 되는 활동은 종종 그 뚜렷한 목적의식이 오히려 예술적 교류에 특정한 틀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런 우려는 이곳에도 존재했다. 하지만 한정된 체계를 변화시키고 확장하려는 예술적 관성은 이 워크숍을 움직이는 또 다른 축이다. 《스테레오 비전》은 이 두 지점 사이에서 장애와 비장애의 차이를 선별르게 재단하고 뛰어 넘으려 하기보다 각 예술가의 고유한 감각과 서로간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창작 활동 자체에 더 주목하고자 했다. 실제로 워크숍 안의 수많은 감각과 그 한계는 매우 개별적이며 이는 단순히 장애·비장애라는 ‘두 문화’로 나눌 수 없었다.

워크숍은 감각과 지각에 대한 이분법적인 분류를 벗어나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그리고 공감각 등이 일으키는 여러 현상과 이것이 신체에 남기는 흔적들에 집중해 보는 시간으로 시작했다. 12명의 참여 예술가 (김은설, 김하경, 김환, 박찬별, 손명희, 윤지영, 이민경, 전보경, 정지혜, 조영주, 최일준, 한승민)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2회의 공동 워크숍은 서로의 신체적 감각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을 이끌어내는데 주목했다. 감각의 한계는 단절이 아닌 전혀 새로운 차원의 공감각적 영역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오로민경의 워크숍, 그리고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이 발명한 ‘감바리싸’라는 미지의 존재를 상상해 보는 시간은 낯선 감각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볼 수 있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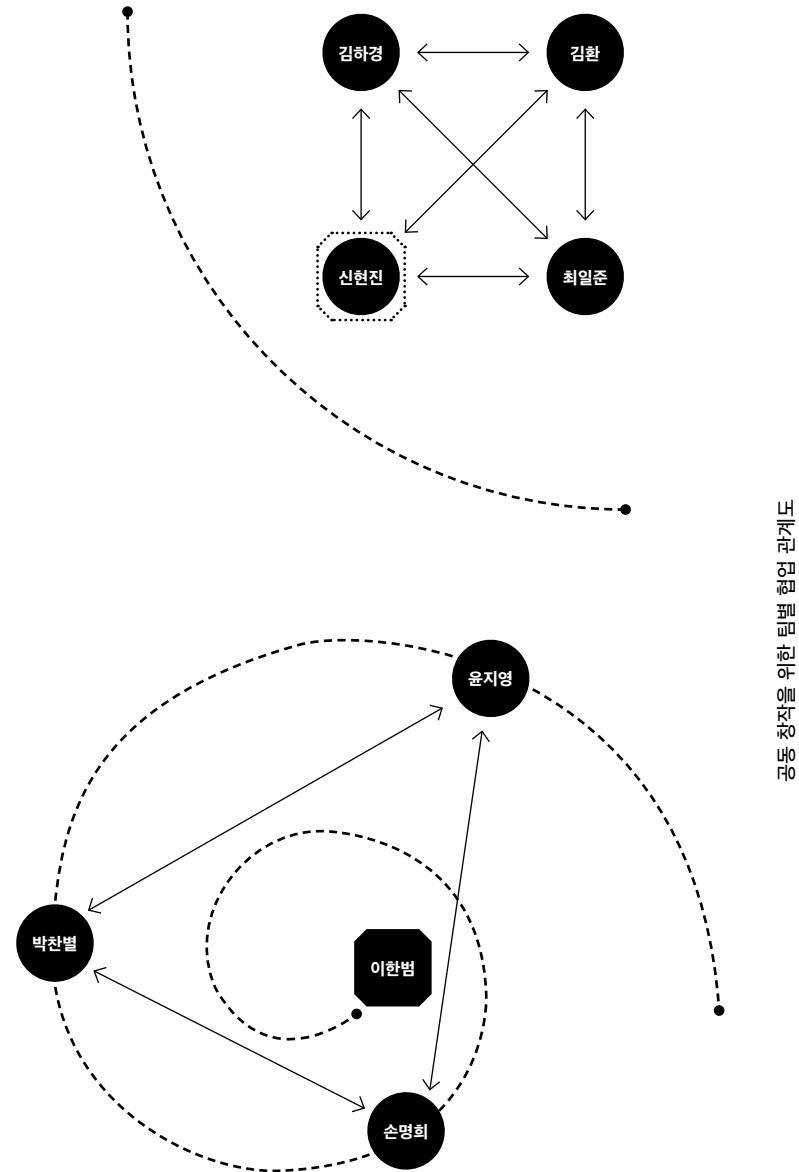


전체 참여 예술가들은 다시 4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개별 창작 활동을 진행했다. 각 그룹에는 이들의 창작 활동을 기록하고 수집하는 역할로 공동 워크숍을 함께한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과 《스테레오 비전》의 편집자 이한범이 함께했다. 이들은 공동 창작 과정을 관찰하는 것은 물론, 참여 예술인 사이의 새로운 대화의 방식을 직접 제안하는 등 창조적인 매개자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워크숍이 제안하고자 하는 다양한 협업의 구조와 이에 따르는 예술가 사이의 시각적 언어를 발굴해 내는 일이기도 했다.

각 팀의 대화 방식과 태도를 보여주는 일련의 다이어그램은 워크숍이 진행되는 동안 발견한 흥미로운 풍경 중 하나였다. 각 팀의 공동 창작 방식이나 협업자, 매개자와의 관계에서 저마다의 특이성이 있다는 생각에 워크숍의 중간 시점 즈음 각 팀의 관찰자로 참여한 4인에게 요청하여 받은 이미지이다. 이것이 각 팀의 세부적인 교류의 복잡성을 다 드러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관찰자 스스로 생각하는 팀 안에서의 그들의 개입 방식과 위치를 단편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번 워크숍은 참여 예술가와 기획자 외에 각 팀에 합류한 관찰자이자 기록자(mediator+archivist), 그리고 대화를 위한 조력자(collaborator in conversation) 등 많은 참여자들이 함께했는데, 이 다이어그램은 워크숍의 과정 중 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해보는데 유용했다. 특히, 워크숍 초기 미처 그 중요도를 깨닫지 못했던 조력자들의 활동에도 주목해 볼 수 있었다.

이에 관한 결과물을 공유했던 기획 전시는 공동 창작의 면밀한 과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물론, 각 참여 작가가 제작한 다양한 작품이 포함되었다. 이는 개별 작품으로 이 워크숍의 과정을 귀결시키기 위함이라기보다 오히려 그 과정 속에 일어난 무형의 대화와 감각의 교차를 현실 세계에 연결시키고자 한 고민의 결과이기도 하다.《스테레오 비전》은 창작의 주체이자 협업자들이 예술적 실천 안에서 어떻게 함께 머무르며 같이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끝없는 질문과 낯선 답변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오늘, 우리는 시각예술과 퍼포먼스, 조각과 평면, 영상과 회화를 구분한다. 또한 동양과 서양, 남성과 여성, 청년과 중견 그리고 다시 비장애인과 장애 예술인을 나눈다. 이는 어쩌면 연속적인 흐름에 초, 분, 시를 붙여야 감각이 가능한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의 숙명 같은 것일지 모른다. 이런 분류 체계는 우리에게 합리적인 지각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우리를 원치 않는 합정에 빠뜨리기도 한다. 이번 공동 창작 워크숍은 이 합정들을 지나며 예술가들이 포착해낸 감각과 언어의 조합이다. 이 결과물은 그동안 공유했던 시간과 대화를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을 취하는 한편, 예술가 고유의 시각적 언어를 담은 작품으로 발현되기도 했다. 여기서 건진 모든 문장과 이미지가 ‘어떤 예술’로 포섭되기보다 이를 함께하고 바라본 모든 모험가와 관찰자, 그리고 여행자의 탐험에 유효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한범

편집의 글

과정을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도출하는 모든 영역에서 그 과정을 기록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기록은 관계의 지도를 그리고 인과의 서사를 쓰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동적인 도구가 되는데, 이때 문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무엇을 기록하고 어떻게 기록할지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스테레오 비전》에 참여한 예술가들의 공동 창작 과정을 기록하기에 앞서 보다 분명히 해야 했던 것 또한 이와 같은 질문이다. 이 워크숍에서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가? 무엇을 문제시 할 것인가?

이번 출판물은 《스테레오 비전》에 대한 기록에 있어서 ‘공동’에 방점을 두었다. 창작이라는 목적 아래 수행한 참여 예술가들의 ‘함께 하기’를 기록의 대상으로 삼았다. ‘하기’라는 동사에서 알 수 있듯 그것은 계속해서 운동하는 동적 체계다. 그리하여 협업이 만들어 낸 결과물, 성과 보다는 끊임없이 긴장을 유지하며 타인과의 거리를 이해하는 과정에 더 주목하고자 했다. 서로 다른 입장과 한계를 가진 예술가들이 관계의 방식을 조정하고 협의해 나감으로써 작품에 이르게 되는 다양한 양상을 드러내 보고자 했다. 물론 결과물은 그 과정을 되돌아 추측해볼 수 있게 해주는 통로가 되어준다는 점에서 또한 중요한 것이다. 나는 협업의 모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모자이크 모델로, 수행 과업을 분업하고 다시 한데 모으는 역할 분담이 이에 해당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합성(synthesis) 모델이다. 합성은 요소들의 상호 침투와 화학 작용을 통해 전혀 다른 성분구조를 가지게 되는 과정을 이른다. 모자이크 모델은 각 부분을 대체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뺄 수도 있지만, 합성 모델은 대체 불가능성에서 시작한다. 모자이크 모델에서 부분들은

하나의 전체적인 형상으로 통합되는 데 소요되고 전체 안에서 부분은 여전히 자기 영토를 가지지만 합성의 과정에서 부분들의 경계는 사라진다. 합성은 상실과 소멸을 전제한 생성의 과정이다.《스테레오 비전》은 기획 단계에서 모자이크 모델보다는 합성 모델의 협업을 상상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스테레오 비전》의 기록은 합성의 복잡한 양상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한편으로는 ‘함께 하기’가 유토피아적인 공동체주의의 이미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그 이미지는 협업의 시간을 성급하게 봉합할 때 우리 눈 앞에 튀어 오른다. 하지만 합성적 협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배우고 인식해야 하는 것은 분명 생각보다 어렵고 치열한 관계의 역동들이다.

무엇을 기록할지가 선명해진 이후 문제로 되었던 것은 누가 기록할 것인지였다. 기록은 관찰을 요구하고, 관찰은 필연적으로 권력구조를 만든다. 이 위계를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것을 끌어 안으며 문제를 넘어설 방법이 필요했다. 그것은 아마도 기록의 글쓰기 자체가 공동의 창작, 그러니까 합성의 과정 전체에 스스로 포함되면서 동시에 그 바깥으로 빠져 나올 때 가능할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비평 행위다. 따라서 기록자는 이 워크숍의 핵심인 ‘함께 하기’와 ‘창작’ 모두에 대해 균형 잡힌 이해를 가지고 비평적 쓰기를 수행하는 주체이어야만 했다. 이런 맥락에서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에게 기록을 요청했다. 이 예술가 그룹은 사회와 문화의 정치가 구축한 관습과 위계를 철폐하고 공동의 삶이 가능한 대안적 사회 모델을 미생물과 발효라는 현상을 빌어 상상한다. 발효는 무엇보다 흥미로운 합성의 과정이고,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은 그들 자신을 스스로 발효 과정의 실험대에 올리며 다양한 방식의 쓰기를 수행해 왔다. 지난 시간 동안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은 하나의 팀으로서 작업을 진행해 왔지만 《스테레오 비전》에서는 구성원 각각이 개별 팀으로 떨어져 독립적으로 작업했는데, 이는 그들에게 있어서도 또 다른 방식의 협업에 대한 시도였을 것이다.

기록과 비평적 개입이 일견 모순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기록은 객관적이고 건조해야 하며, 판단이 부여되지 않아야 한다고 여겨지지만 이에 반해 비평은 해석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스테레오 비전》의 공동 창작 과정에 대한 기록은 다른 무엇보다 이 해석적 기록이 요구된다. 기록이 1차적으로 손에 절 수 있는 것은 가시적인 것들뿐이다. 관찰자는 참여자들의 대화, 몸짓, 그들이 만들어낸 이미지나 물건 등을 살펴본다. 하지만 이 워크숍에서 진정으로 다루어야 할 것은 가시적인 것들을 가능하게 한 어떤 이유들이다. 눈 앞에서 일어난 일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들을 이해하고 가시적인 것들과의 연관성을 찾아야 한다. 온도의 흐름을 느끼며 변화와 결정들에 대한 추측이 필요하다. 이러한 추측에 근거할 때 ‘함께 하기’와 ‘창작’은 요술주머니에서 특 튀어나온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실천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의미로, 서사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함께 하기의 방식을 검토하고 조정함으로써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함께 하기의 방식을 협상하게 할 것이다.

공동 창작 워크숍

소소하고 세세한 이야기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
(손혜민, 신현진,
유소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인 과정의 관찰과 기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볼게요. 우리는 기록자에게 주어진 '관찰'이라는 시선과 판단이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대상을 면밀히 주시하며 판단하는 시점을 가진 기록자의 (갑작스런) 등장이 작가들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 협업에 더해 또 하나의 고민을 안겨주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었죠. 우리에게 주어진 '능동적인 기록'이라는 추상적인 역할은 사실 어떤 것일까요? 협업을 하는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역할로 존재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는 작가들과 함께하며 그 대답을 구체화해 나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록해야 할지 정하고 시작하지 않되, 팀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팀에 나누어져 들어가 판단과 방향, 방식을 공동 회의 없이 각자 진행하기로 했어요.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 멤버 모두가 팀에 참여하기보단 각 팀에 한 명씩 들어가는 것이 여러 상황에 맞게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각 팀의 작업 방향과 움직임에 맞추어 우리의 역할은 다르게 구현되었고, 우리는 각자가 참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역할을 만들어 나가고 작동했습니다. 거리를 둔 관찰자이기도 했고, 능동적인 조정자이기도 했고, 협업의 구체적인 연결고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작가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에 동참했지만 창작물을 완결하는 주체는 아니었어요. 8월 말부터의 작품 제작 과정은 우리를 제외한 작가들의 몫으로 확고히 정해져 있었죠. 우리는 창작 과정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지면서도 작가들이 창작의 결과물을 전시로 구현하는 기간에는 스르릉 떠밀려 없어지기도 했어요.

장애·비장애 예술인 공동 창작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미지의 존재를 만났을 때와 비슷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참여자 모두는 어떻게 이 과정을 시작해야할지 몰랐어요. ‘협업’을 점점으로 두기에는 말을 중심으로 한 소통 방식이 계속해서 어긋났습니다. 행정 문서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도 매달 수면 위로 드러났어요.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록팀과 기획팀, 팀 내 장애 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의 비율의 차이가 동시에 교차하는 상황에 놓인 우리 모두는 어쩌면 헤매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함께 헤매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장애와 비장애라는 규정적 틀로 나누어진 개개인이 협업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비장애인 중심의 언어체계와 경험치에도 불구하고 정돈된 언어로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혹은 구멍난 메타포로 다양한 해석과 상상의 공간을 열어두어야 할까요? 우리가 당면한 불균형의 문제를 함께 부딪히며 해결해나갈 수 있는 공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협업의 방식에 대한 특정한 방향성 없이 우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에 의의가 있었으니 우리는 함께 여행할 것입니다. 여행 장소는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다를 줄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 미지의 존재.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은 ‘사회적 발효’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여러 해석과 상상, 지향성을 작동시켜왔고, 이 개념의 구체적인 실천, 해석과 은유를 통해 그 모습을 함께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부딪히며 서로에게 이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은 장애·비장애 예술인 공동 창작 워크숍에서 <감바리싸의 세계>로 구현되었어요. 감바리싸는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어떤 정의에도 해당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참여자 개개인이 감바리싸의 모습 또는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봄으로써 감바리싸의 정체성을 합의된 틀 속에 넣어놓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변형되고 확장하고 새어나가는 구멍난 메타포로 상상해보았습니다. 참여자 각자의 감바리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모습이 분명해지기도 하고 가끔은 더 알 수 없는 존재가 되거나 소멸되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각각의 감바리싸가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가변적 세계를 만들어보았습니다.

말과 신체, 감각 기관이 협업의 점점으로 작동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선 신체의 제약을 벗어나 공통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육감’이라는 감각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치를 통해 서로 다른 존재의 경험, 촉, 개인적이고 직관적인 묘한 감정을 뒤섞어보았습니다. 우리의 육감은 서로를 조심하게 하기도 하고, 가끔은 깊이 들어가게 하거나 문제를 회피하게 하거나 침묵을 지키게 하기도 했어요. 이에 따라 우리는 언어와 비언어로 창작자들의 주변을 맴돌기도 하며 시간이 흐르는 것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미지의 존재라 느꼈던 것들이 언어로 정리되기도 했고, 가끔 소통의 간극이 커지기도 했지만 그 간극에 대응하는 방식들은 몸 안에서 체화되어 경험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각자의 육감으로 자신과 타자에 대해 알아가고 그에 따른 실천으로 암을 체화하는 것은 아닐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치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참여 작가들과 기획자 사이에서 가끔은 그냥

존재하다가도 가끔은 깊숙이 들어가는 과정을 반복하며 자신의

위치를 재고하는 미지의 존재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감바리싸의 세계 속에서 다양한 존재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

미지의 존재는 우리 자신이기도 했습니다. 멀리서 관찰하다가도

불쑥 워크숍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기록'라는 주관적이면서

객관적인 장치로 기록하는 모순덩어리였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우왕좌왕했던 6개월 남짓의 시간을 정돈된 줄글로

풀어내는 변신술을 빼그덕 빼그덕 시전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감바리싸의 기운이 또 다시 느껴지는 날이 올까요?

이민경
조영주
한승민

손혜민

기록의 글

2020. 6. 20.

한승민 작가 스튜디오

사전 미팅 이후 공식적으로 이민경, 조영주, 한승민 팀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첫 자리였다. 세 작가, 한승민의 어머니 허윤영, 그리고 기록자인 나는 한승민의 스튜디오에 모였다. 나 또한 작가들을 처음 만났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 팀에 존재해야 할지 모른채 그렇지만 최대한 열심히 이야기를 경청했다. 작가들은 협업에 집중할 수 있는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서로에게 흥미로운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질문하며 서로의 관심사와 연계점을 탐색해 나갔다. 회화를 다루는 한승민의 작업 과정 속에 이민경과 조영주는 어떻게 개입과 협업을 주고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민경과 조영주가 한승민의 회화 작업 과정 중에 개입할 수 있는가? 작가들은 서로의 개입이 고객에 맞추어진 서비스 같은 것이라면 지양하고 싶다고 했다. 각자의 흥미를 통해 릴레이식으로 협업하는 것은 어떨까? 예를 들어 춤을 좋아한다면 춤을 같이 만들어 볼 수 있고, 그 춤을 함께 출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도와주거나 혹은 함께 하면 재미있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전투요.”

한승민 어머니는 한승민의 다음 준비 중인 작품에서 ‘전투’가 중요한 요소인데, 도시에 바이러스가 침투해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회화 작업으로 표현하고 있다 했다. 또한 한승민은 몸으로 표현하는 뮤지컬을 좋아해 직접 공연에 출연하기도 하고, 전시장에서 자신의 작품에 대해 관객에게 소개하며 나누는

작업을 좋아한다고 했다.

“작가님 목소리가 좋아요.”

“작가님 스튜디오에 오는게 좋은가요?”

“네.”

좋아하는 음악과 움직임을 그려 보거나 이와 연계해 공연, 연극적인 것에 대해 상상했고 이를 영상이라는 결과물로 구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영상에서 전투라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구현한다면 어떤 방식이 될까? 세 개의 이야기가 교차하면 어떨까? 세 개의 채널이 영상으로 만들어진다면?

“작가님의 회화가 무대 배경이 될 수 있겠어요. 미니어처로 소화하는 인형극처럼요.”

“우리집에 인형이 많아요. 딸이 좋아하는 인형. 작은 인형들로 인형 놀이처럼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 있겠어요.”

‘변신’이 주요한 소재와 상징인 일본의 특수촬영 TV 방영물 <가면라이더>에 영감을 받는 한승민의 안내로 변신을 이용한 여러가지 의상과 도구를 만들어 보는 것으로 공동 작업이 시작되었다. 작가들이 이렇게 첫 단추를 맞추어 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기록자인 나는 이 그룹의 대화에서, 협업에서 적극적으로 거리를 두기로 했다. 특정한 드라마를 통해 상황과 관계, 사회를 인지하고 이해하며 적용하는 한승민과 다른 두 명의 작가는 어떻게 한승민과 주파수를 맞출까가 협업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이는 작가들끼리만도 벅찬 일이었다. 세 작가가 만들어내는 과정을 세세하게 생각해 보고, 그들의 협업을

뒷받침하는 여러가지 작동 방식을 기록으로 드러내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020. 7.10.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의 워크숍 <감바리싸의 세계>

‘언어’를 최소한으로 하는 소통방식으로 워크숍을 꾸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의 의사를 나눌 수 있을까.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이 기획한 워크숍 <감바리싸의 세계>는 언어를 배제하고 더 나은 소통 방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통 체제와 감각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를 시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비장애와 장애라는 숨막히는 의제를 잠시 벗어나서 육감을 따라가 보는 것을 제안한다.

<감바리싸의 세계>가 진행될 동안 이민경, 조영주, 한승민은 같은 책상에 앉아 언어 이외의 방식으로 먼저 안부를 묻고 대답했다. 다소 억지스런 상황이었지만 주로 그림을 그려 의사소통을 하고, 눈짓과 몸짓이 더해져 서로 안부를 물었다. 이후 한쪽에 놓여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감바리싸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작가들은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것에 안도감이 드는 듯 해 보였다. 감각적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종의 놀이었기에 시각예술 작가들 뿐 아니라 무용 등 타 분야 예술가들도 손쉽게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감바리싸의 세계”라고 명명한 공간에 초대된 세 작가에게는 아무런 언질도 없이 주황색 마스킹 테이프가 제공되었다. 공간에는 어떤 힌트들이 있고, 이전 팀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다. 세 작가는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마스킹 테이프를 하나씩 가졌다. 이민경과 조영주가 주도하여 한승민과 서로의 몸에 테이프를 감았다. 몸에 테이프를 감으니 셋은 곧 하나의 덩어리가

되었고 움직임도 서로에게 이끌려 갈 수밖에 없었다. 조영주는 테이프로 서로를 잇는 것에 집중하는 듯 보였고 이민경은 감긴 테이프의 장력으로 자신의 몸을 지탱해 움직여 나갔다. 한승민은 몸에 붙은 테이프 때문에 움직임이 점점 더 불편해지자 얼굴이 붉어졌고 움직임에 이끌려 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셋이 움직이면서 공간에 있었던 이전의 궤적들은 가차없이 파괴되었다. 파괴의 쾌감이 더해져 셋은 하나의 덩어리처럼 공간을 이동했고 이전에 있는 것들과 더해져 덩치가 커졌다. 한승민은 움직임의 불편함이 커지자 테이프를 끊어내려고 했다. 손으로 테이프를 탁탁 쳐서 끊어내려는 제스처의 강도와 크기가 커졌다. 이민경과 조영주는 한승민이 덩어리에서 나가자 마찬가지로 곧 덩어리에서 떨어졌고 그들이 허물처럼 벗고 나간 테이프 뭉치를 벽에 붙여나갔다. 15분의 시간이 지나고, 모두 나오라는 손짓에 세 명은 공간에서 빠져 나왔다. 조영주는 한승민과 나오면서 이야기를 건넸다.

“작가님 팬찮아요?”

“네, 안이 너무 더웠어요.”

“작가님이 아까 손으로 탁탁 테이프를 쳐서 화가 난 줄 알았어요.”

“아니요. 살갗에 테이프가 닿아서 아프고 더웠어요.”

〈감바리싸의 세계〉는 한승민이 어머니 없이 처음으로 혼자 참여한 워크숍이었다. 나는 세 작가를 지켜보며 중간에 그 과정을 중단해야하지 않나 생각했다. ‘자 잠시 쉴게요’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으나 그 말을 뱉지는 않았다. 나는 그곳에 존재하지만 나에게 목소리가 주어졌다고 생각지는 않았다. 누군가의 불편함이 도드라져 보이는데, 그런데 그 불편한 감정을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갔다. 그리고 셋이 말 없이

만들어 내는 크레센도의 격한 흐름은 이전의 예의바른 워크숍과 미팅에서 볼수 없었던 것이었다. 감정의 흐름 혹은 몸짓이 격해지면서 그 안에 갈등과 조정이 짧은 시간에 생겼다.



2020. 7. 27.

조영주 작가 스튜디오

이민경, 조영주, 한승민, 그리고 한승민의 멘토 정경희 작가, 한승민의 동생,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최영한 주임, 기록자인 나는 조영주 스튜디오에 모였다. 세 명의 참여 작가 이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작가들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사전에 이민경, 조영주가 요청했고 나 또한 기획팀에게 전달한 사항이기도 했다. 우리는 한승민 여동생이 준비해온 맛있는 샌드위치와 음료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허윤영 어머니는 매번 회의와 미팅 때 이렇게 간식을 챙겨 주셨다.

우리는 노트북으로 가면라이더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보여주는 〈가면라이더〉의 첫 화를 함께 시청했다. 〈가면라이더〉는 ‘변신’과 ‘변신 장비’가 중요하다. 평범한 고등학생이 ‘변신’을 통해 ‘변신 장비’를 이용해 악당을 물리치고 영웅이 된다.

“왜 가면라이더가 좋은가요? 변신해서 싸우는 것이 좋은가요?”

“어떻게 강한 마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되죠.”

“어긋나 있는 마음이 악을 탄생하게 합니다.”

“아니요, 예술은 마법이에요. 희망을 사랑하는 예술가죠.”

“예술을 우습게 보지 마시오!”

변신을 안하면 평범하기 그지 없고 약한데, 변신해서 강해지고 싸움에서 이기면 “희망의 영웅”이 된다. 정경희 멘토는 한승민의 이야기에 덧붙여서 그가 옳은 것(정의)에 대한 믿음과 남을 ‘배려’하는 강한 책임감이 있다고 했다. 선과 악에 대한 그의 다소 분명해 보이는 판단은 예술에 대한 생각에서도 다른 두 작가와 확실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어 보였다. 정경희 멘토는 작가들의 이야기를 한승민에게 한번씩 더 전달하는데, 같은 내용이지만 속도를 천천히 하고 동작을 섞어가며 이야기했다. 그리고 중간중간 작가들과 더불어 한승민의 호응을 끈기 있게 이끌어 냈다.

〈가면라이더〉를 함께 보며, 세 작가는 변신을 통한 메타 정체성이 생기는 부분, 힘을 주는 영혼과 연합하는 몸, 현란하고 기발한 변신 장비를 고안하는데 흥미를 가졌다. 그리고 함께 작업한다면 이 부분이 각자의 해석과 더불어 공동 작업의 여지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한승민이 캐릭터를 그리고, 각각 다른 작가들이 목소리로 참여 한다던가, 혹은 세 명의 작가가 각각 세 캐릭터를 만들어 보는 식으로 말이다.

“우리가 놀이처럼 종이 인형을 만들어 보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는 건 어때요?”



변신을 이용한 캐릭터와 여러가지 의상과 도구를 만드는 일은 악자지껄 즐겁게 진행됐다. 이민경은 종이 인형 만들기가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솜씨 좋게 사무라이 캐릭터를 완성했다. 조영주는 잡지에서 오린 물건과 준비한 종이, 색연필로 캐릭터를 그리면서 딸이 좋아하는 캐릭터와 비교해 보기도 했다. 한승민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가면라이더〉를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누고, 또 캐릭터를 만드는 일을 하며 즐거운 듯 쉼 없이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저는 종이 인형 놀이 안했어요, 닌텐도로 했어요.”

“어릴 땐 종이 오리는 게 힘들어서 엄마께 부탁했어요.”

“난 오리는 게 더 재미있었는데.”

이민경은 사무라이 걸, 조영주는 태양 복주머니 변신을 통한 복부인 써니, 그리고 한승민은 가면라이터 JR을 완성해

변신 역할극을 진행해 보았다. 각자의 종이 인형을 가지고 즉흥극을 했었는데, 창작 생활의 어려움, 예술의 정의, 돈, 명예, 여성의 역할 등 각자 처한 현실들이 묘하게 묻어 나오며 서로의 이야기에 침범하고 영향을 주고 받았다.

이후 10월 전시 전까지 작가들은 전시를 위한 영상 인터뷰 촬영을 한 번 하고, 공동 영상 작업을 위해 두 번을 더 만났다.

세 작가의 대화와 작업을 되돌아보며….

장애·비장애 예술인 공동 창작 워크숍에 참여하며 나에게 스스로 했던 질문은, “시각예술에서 어떻게 장애를 받아들이고 있는가(과거/현재)” 혹은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인가(미래)”이다. 그 질문을 들여다보기 전에 시각예술에 내포되어 있는 감정, 감각, 기술과 역사가 집약된 ‘미감’이라는 것은 정교하게 이데올로기화 되어 있음을 인지하며, 어떤 방식으로 장애를 포함하고 배제하는가를 가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구분과 정의가 어쨌든 비장애인인 나의 관점이며, 내가 가진 ‘장애’에 대한 생각은 이미 ‘편견’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여기에서 쉽게 벗어나기보다 더 치열하게 어쩌면 내가 가진 ‘장애’의 정의를 파헤쳐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어떤 정치의 옷을 입고 어떤 계급에서 나왔으며, 어떤 교육과 제도 속에 공고히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 보려는 노력 말이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며,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다.

나는 작가들의 대화를 듣고 참여하면서 크게 세 지점을 생각해 봤다. 첫 번째는 시각예술 관객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특히 나 또한 창작자로서 어디까지 (여기서는 장애를 가진 혹은 소수의 관객) 책임을 지고, 작품을 제시할 것인가였다.

이는 근미래에 실질적인 제도적 제안을 통해 논의하고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공적인 제도로서의 미술관과 갤러리는 마땅히 관객의 범주를 비장애인에게만 국한해서는 안될 터이다. 그에 따른 제도적 제안은 ‘접근(access)’에서 관람, 소통, 전시 주체, 자료, 컬렉션 등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작가로서 우리는 너무 쉽게 그리고 빠르게 관객의 범주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도 되돌이켜 생각해보고 싶다. 한 가지 사례가 떠올랐는데, 2018년 노팅엄에서 영국예술위원회(England Arts Council) 주최로 열린 ‘다양성을 위한 창의적인 사례(Creative Case for Diversity)’의 심포지엄 현장이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와 자막 비디오 등 심포지엄을 제시하는 여러 접근 형태와 어떻게 예술과 창작 과정 안에 적극적으로 다양성을 드러낼 것인가를 살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특히 ‘장애와 컬렉션’이 흥미로웠는데, 기존의 미술관 작품 컬렉션을 새로운 눈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확장의 기회로 장애인들의 참여를 통해 컬렉션의 해석과 새로운 층위를 더하는 프로젝트였다. 이는 먼저 컬렉션의 수집과 해석, 소통이 장애를 배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장애인의 참여를 통해 기존의 컬렉션을 해석하는 새로운 길라잡이를 마련하고 나아가 컬렉션 수집 방향까지 고려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업의 주체로서 장애인의 관점이 제도적으로 공고한 컬렉션을 해체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과 그 틀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함께’ 했다는 것에 낭만적인 방점을 두며 ‘함께 일한다—협업’의 의의를 축소하기 쉬운데, 그보다는 ‘무엇이’ ‘어떻게 변화’ 했는지를 가능한 세세히 들여다 봐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함께’ 했었다는 것에만 의의를 두게 된다.

두 번째는 장애·비장애 예술인 공동 창작 워크숍 초반에 ‘장애’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하는 비장애 예술가와 당사자인 장애 예술가의 사이의 ‘장애’의 간극은 어떻게 좁혀질 수 있는가이다. 이 지점은 후반으로 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라는 소통의 간극으로 바뀌어 간 듯 하다. 20여 명이 참여한 전체 워크숍과 팀 별로 3~4명이 참여한 모임에서 느낀 것은 한정된 시간인 경우 대부분의 대화가 비장애 예술인으로 주도된다는 점이었다. 모두가 발언 기회가 있었고 청각장애를 가진 작가를 위한 문자 통역사가 항상 함께 했으며, 발달장애를 가진 작가의 어머니가 거의 모든 모임에 참여했다. 하지만 대화의 속도는 비장애 예술가들에게 맞추어져 있는 듯 보였다. 이번 워크숍은 장애 예술가 한 명, 비장애 예술가 두 명으로 한 팀을 꾸렸는데 이런 비율의 차이 때문일까? 혹은 실질적으로 다양한 ‘장애’의 특수성이 받아들여지는 시간차일까? 아니면 단지 고유한 창작 방식을 맞춰나가는 개인차인가? 언어라는 다각적인 감각이 요구되는 소통이 주도적으로 진행 돼야 하는 부분을 포함해 또한 이를 보완하는 다른 제안을 해 본다면 어떤 방식이 될 수 있을까. 이는 각 협업의 소통 뿐 아니라 기관에 내는 보고서, 전시 등의 여러 행정 절차적인 면에서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예를 들어 문서 작성이 어렵다면 시청각 자료를 보고서로 차용한다거나 하는 방식 등 말이다. 소규모 그룹에서는 각 예술가들끼리 어떻게 해서든 서로에게 ‘접선’을 하려고 노력한다. 새로운 협업자에 대해 지극히 자연스러운 관심과 창작 방식의 차이점에 몰두하기도 하고, 어긋나 보기도 한다. 창작자로서의 각 협업 주체들은 ‘접선’의 방식을 찾기 위해 유연히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다. 한 작가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으로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는 첫 시작을 여는 것 처럼, 한정된 시간에 유효한 지점을 만들어 내려고 한다. 이들은 어쩌면 육감적으로 서로에게

이끌리는 어떤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그것을 붙잡아 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이번 시각예술 작업 과정과 결과물을 이끌어 내기까지 협업의 범위는 어디까지 였을까? 즉, 작가들만의 협업이었을까? 이민경, 조영주, 한승민 작가의 협업에는 작가들뿐 아니라 작가의 어머니, 동생, 멘토가 참여해 매 회 의사소통을 했고, 더 나아가 잠실창작스튜디오란 공공기관의 도움도 있었다. 이렇게 협업의 범위가 확장되고, 또한 확장될 수 밖에 없는 부분적 이유는 장애·비장애 예술인의 협업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장애 예술가의 장애는 그 개인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고 그의 가족, 관계망, 제도에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와 하는 협업은 당연히 이 범주를 끌어들인다. 이 범위는 그림자로 드러나 있지 않거나 가족단위가 짊어지는 책임으로 전가되기 쉽다. 이민경, 조영주, 한승민의 거의 모든 만남과 공식 행사에 허운영 어머니가 참여하셨다. 자발적이었지만 그녀의 큰 역할이 없었다면 세 작가가 유쾌한 영상 작업을 만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역시 이는 제도적으로 멘토링이나 장애 특성에 맞는 후원 등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협업의 결과물인 영상 작업을 보면서 나는 이민경과 조영주, 한승민이 자신의 예술적 자아를 잠시 한 쪐에 내려놓고 서로에게 열중했다고 본다. 세 편의 옴니버스 종이 인형극에서 세 명의 작가는 인형극 그림자 배우로 등장한다. 그들이 조정하는 캐릭터에서 작업에 대한 에고와 시너지를 발랄하게 녹여내고, 매콤한 현실을 초현실적인 인형극으로 좌충우돌 그려낸다. 작업 결과물이라고 할 서로간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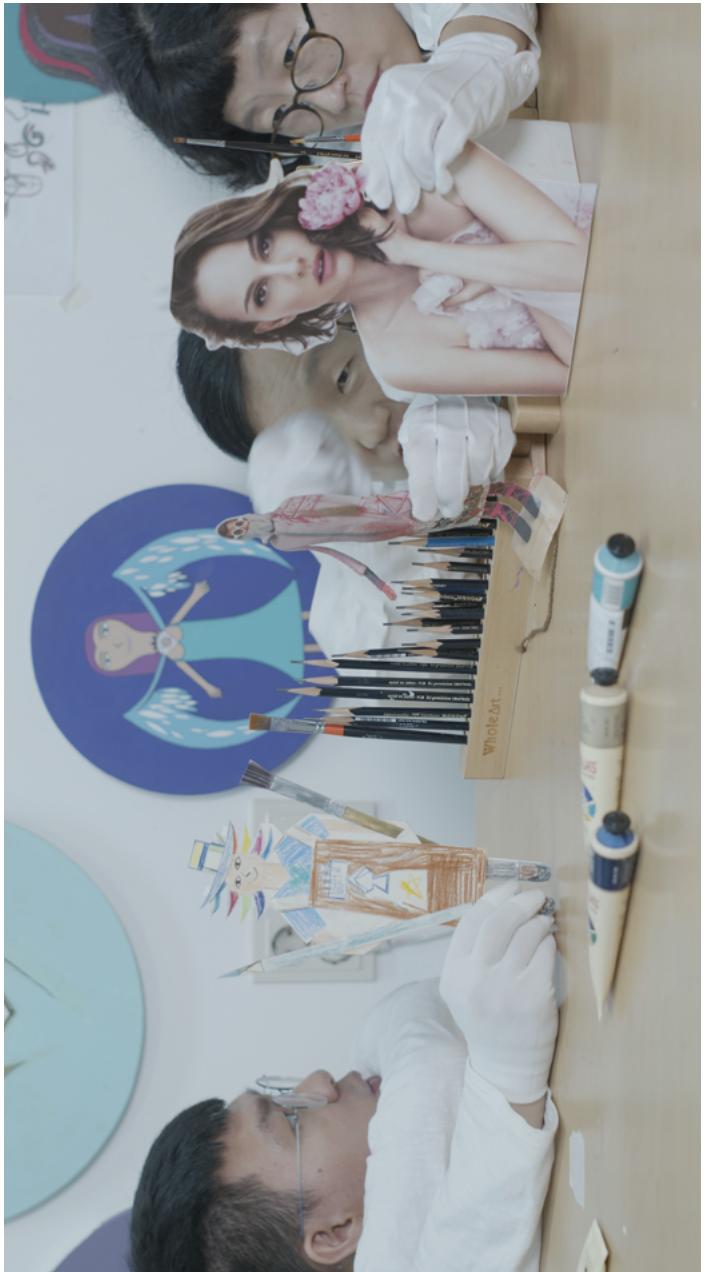
화학 작용은 세 작가의 순수한 뜻이며, 그것은 제도 밖에,
미지의 세계에 있어 매혹적이다.

이민경 조영주 한승민 작품 소개

조영주, 이민경, 한승민
<턴업>, 단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한국어 자막),
12분 20초, 2020.
40-45p

만들어진 세계, 자신의 온전한 환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조영주, 이민경, 한승민은 각자의 상상을 바탕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교차시켜 하나의 가상 세계를 만든다. 신체를 둘러싼 사회적 기호나 상징이라는 비슷한 관심사를 각기 다른 매체와 표현 방식으로 구현하는 조영주, 이민경. 그리고 주변의 다양한 풍경과 사물 등을 특정적인 표현방식의 회화로 제작해온 한승민. 이렇게 서로 다른 세 명의 작가가 만들어낸 교차점은 한승민의 오랜 관심사인 판타지 히어로물에 대한 이민경, 조영주의 새로운 접근을 통해 이루어졌다. 각 작가가 얇은 종이인형에 투영해내는 등장인물의 모습과 조건들은 비현실적이면서도 어딘지 오늘의 현실과 맞닿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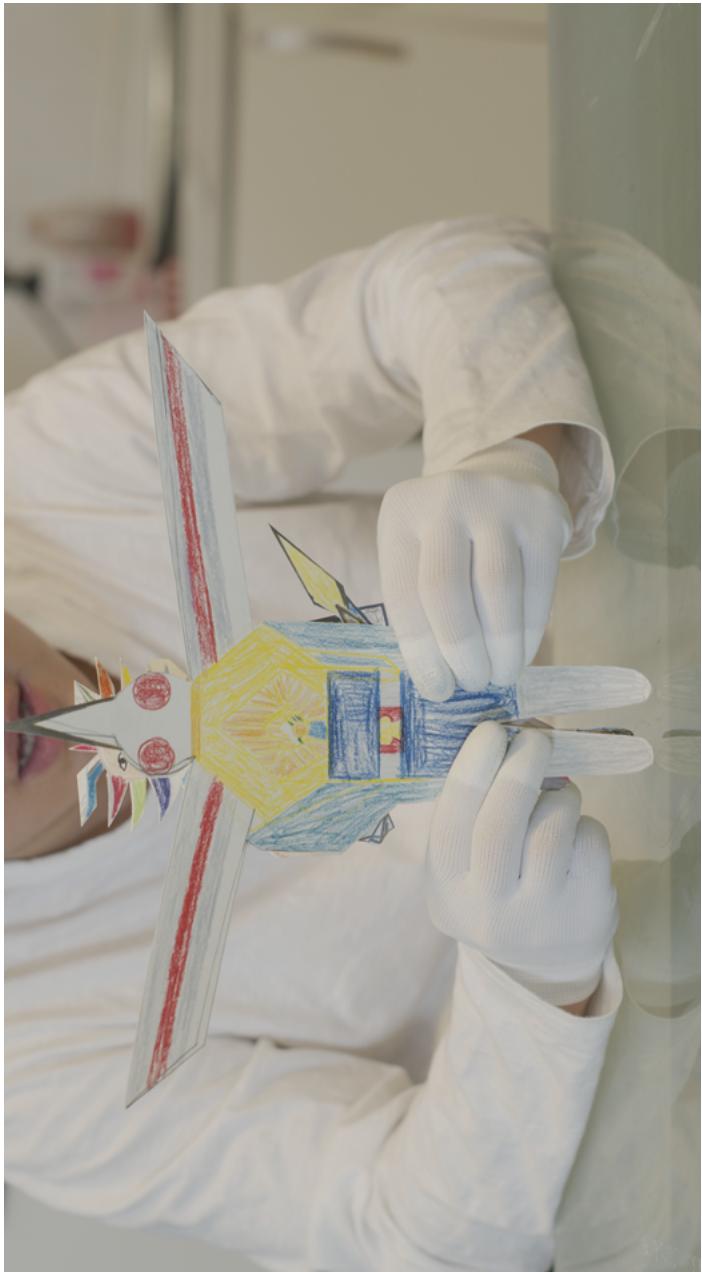
세 작가는 변신이라는 주제로 세 개의 이야기를 담은 작은 종이인형극을 만들었다. 인형극을 촬영한 영상에는 흰 옷과 흰 장갑을 끼고 각자의 종이인형을 움직이는 세 작가의 모습이 보인다. 이들이 표현하는 캐릭터는 실제 현실 속의 예술가들 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고, 당당하며, 유쾌한 모습이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삶의 여러 책임에서 자유롭고 싶은 예술가이자 엄마, 그리고 주위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예술세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또 다른 예술가의 모습이 그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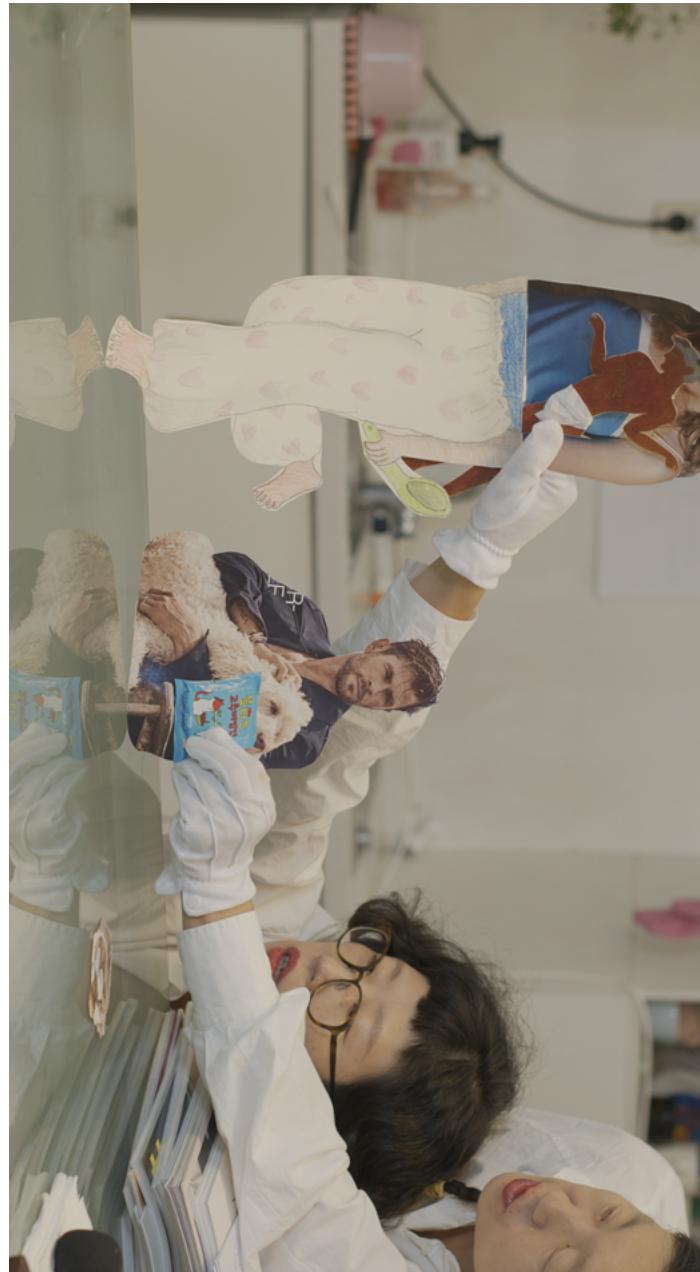
작품 소개



이민경 조영주 한승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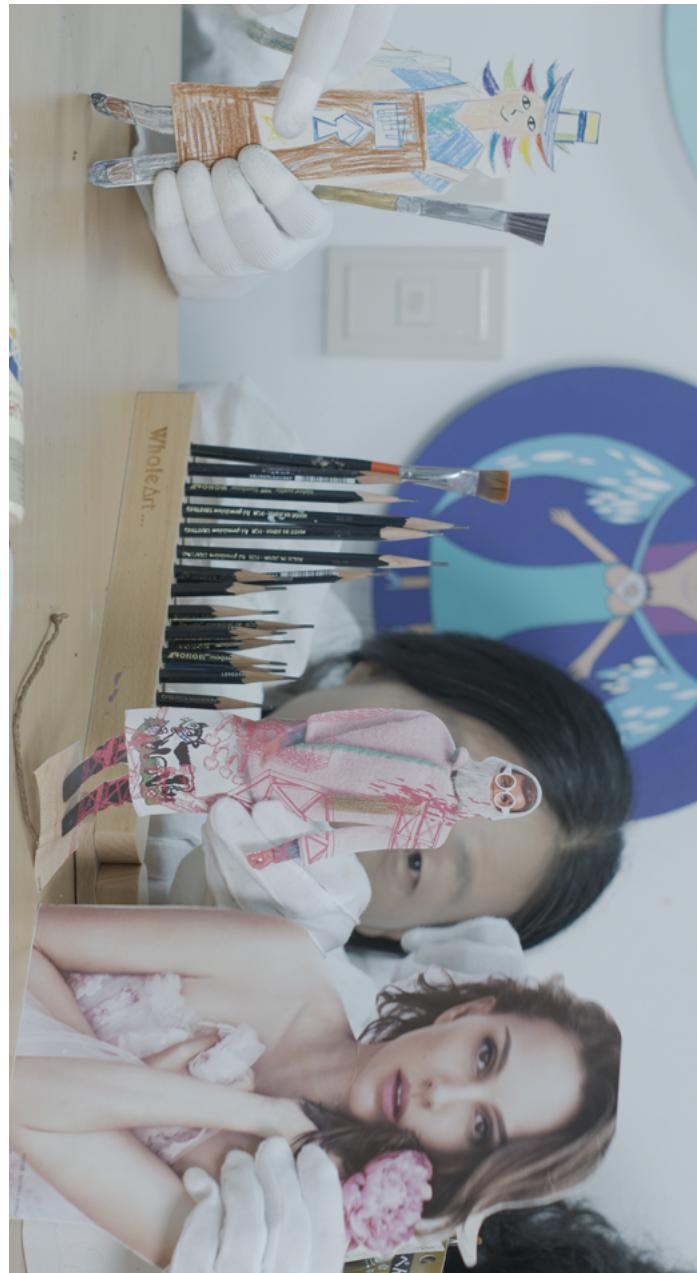
작품 소개



이민경 조영주 한승민



작품 소개



이민경 조영주 한승민

한승민, 조영주 작가와 협업한 이 공동 작업의 출발점은 ‘우리가 어떤 매체로 만날 수 있는가’였다. 회화를 하는 한승민 작가와 비디오, 설치, 퍼포먼스 등을 하는 조영주 작가, 그리고 무용과 퍼포먼스를 주로 하는 나를 포함한 3인의 접점은 한승민 작가의 그림을 무대 배경으로 사용하는 비디오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했다. 회화를 배경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크기의 캐릭터들을 생각하면서 종이 인형과 인형극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인형들을 통해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싶었다. 한승민 작가가 평소에 대단히 흥미를 가지고 있는 일본 텔레비전 시리즈〈가면라이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영웅에 의한 정의구현’이라는 가면라이더의 서사 구조를 사용하여 작가 생활과 고민을 담는 이야기를 만들기로 했다. 결과물로 나온 종이인형극에는 다양한 작가들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마법의 힘을 가진 가면라이더는 그 작가들이 겪는 어려움과 열망에 대한 환상적인 해결책들을 제안한다. 하지만 이 작업이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인형극의 줄거리를 통해 메시지나 교훈을 던지는 것보다는 인형놀이 또는 싸이코드라마를 하는 행위 자체의 예술적, 유희적 치유의 능력이고, 이를 통한 예술의 가능성을 수행해보는 것이다. 영상에 등장하는 인형들보다 그 인형들을 연기하고 움직이는 인형술사 작가들이 사실은 이 인형극의 주인공들이다.

이민경, 한승민 작가와 두 번째 만나는 날이었나 보다. 각종 전시와 지원금 관련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그리고 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인터뷰, 사람 관계 등으로 난 무척 피로한 상태였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육아와 생계를 위한 노동의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고, 그것 때문인지, 작업 역시 내가 이행해야 할 하나의 임무 같은 존재로 느껴지던 날 중 하루였다. 어쩌면 그 이전부터 작업은 나의 직업적 의무이자 기한 내 마감해야 하는 과제 같은 것이었을지 모른다. 모든 일과 직업이 그러하듯 시작의 설렘과 순수함은 퇴색하고, 관성에 젖어 그냥 하루하루를 살듯, 나의 작업과 내 직업인 ‘작가’라는 이름은 언젠가부터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판들었던 날이다. 그날, 한승민 작가가 예술은 아름답고, 위대하고, 멋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일까. 그리고 그것이 그의 진심으로 느껴졌기 때문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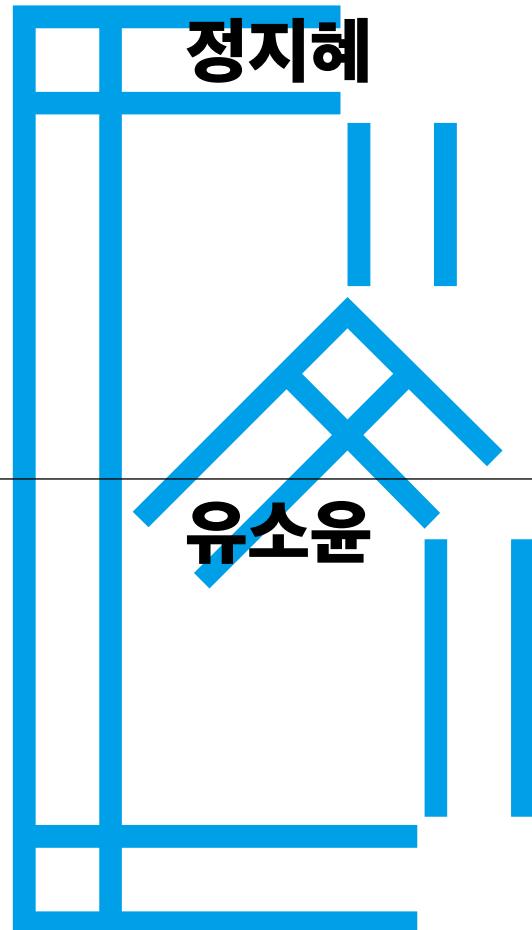
내가 지긋지긋해하는 서류들과 작업 마감일, 생계에 관한 암박처럼 작업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는 귀찮고 지겨운 것들을 대체 한승민 작가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일까 궁금하다. 만약 그것에 자유롭다면, 그는 나에겐 무척 부러운 사람이 될 것이다.

인형극 비디오는 우리 세 작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생각했다. 공동 창작에서 고민되는 지점들, 그러니까 각 참여자의 동등한 힘과 의견, 평등하고 민주적인 구조, 예술 작품으로서의 결과물이라는 여러 요구에 부합하고 싶기도 했다. 결국 작가의 삶에 관해 이야기하게 되었고, 각자가 하고 싶은 불평이나 넋두리를 가미하였다. 인형극에서는 가정 생활과 작업을 병행해야 하는 작가, 성공하기 위해 윗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작가, 예술 기관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에 질린 작가, 관객에게 외면당하고 좌절하는 작가 등 작가라면 누구나 가지는 욕망과 현실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매번 그런 작가를 구해주거나 혼내주는 영웅 ‘가면라이더’가 등장하고, 그 결과는 “정의롭다”. 예술이 아름답다고 확인하는 작가와 그것에 의심이 많은 작가가 만나 이루어진 협업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시작점으로 유효할 것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기대했던 건) 작가들과의 만남이었어요. 어떻게 춤과 노래로 예술을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 예술을 어떻게 만화처럼 움직일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종이인형 만들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새로운 이미지가 아주 활발합니다. (제 인형은) 어떤 적과 싸우면서 정의로운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작가님들의 인형은) 커다란 꽃과 칼을 든 사무라이였어요. 하지만 커다란 꽃은 문어인지 꽃인지 전혀 잘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만들고 친구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술을 가르쳐 줄 거라고요. 아직 예술을 이해 못하는 친구에게요. 오페라와 노래를 통해서 말이죠, 연기를 통해서.

*작가 인터뷰에서 발췌

김은설 전보경 정지혜



공기가 귀가 되고, 귀가 눈이 될 때

유소윤

우리는 6월 12일 오후 통의동 보안여관 지하에서 처음 만났다. 조명이 어두워서 입모양을 알아보기 힘들고 천장이 높아 소리가 모이지 않는 공간이었다. 은설 작가님이 쓰시는 음성 인식 앱은 공간이 주는 긴장감과 처음 만난 여섯 명이 빠르게 주고 받는 문장들을 애먼 단어들의 조합으로 풀어냈다. 말하는 우리가 느끼기에도 앱이 느끼기에도 불분명한 문장들이었다. ‘장애·비장애 예술인 공동 창작 워크숍’이라는 제목을 단 워크숍에서 어떤 문장들을 골라 써야 할지 잘 가늠이 가지 않았다. 얼마만큼 소리 내고 얼마만큼 침묵해야 할까? 단어들은 얼마나 또렷하고 정확해야 할까? 장애, 비장애, 청각장애인, 소수자, 정상성, 접근성. 어쩌면 인식하기 더 쉬웠을 수도 있는 이 단어들은 우리가 쓰는 문장 안에서 생략된 채 사라져버렸지만 여전히 우리 위를 떠돌고 있었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새 불현듯 나타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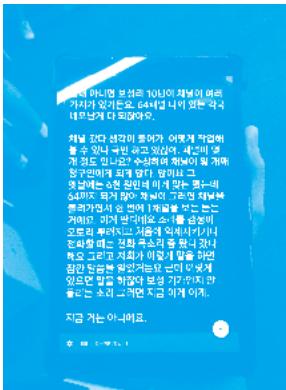
기록의 글

공기가 귀가 될 때

“누군가 있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면 벌레가 돌아다니거나 누가 나타나는 경험이 종종 있다. 아무 생각 없이 땅 때릴 때도, 순식간에 스쳐 지나갈 때도, 걸어다닐 때도 이질감이 들어서 보면 낯선 게 있다. 원래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눈에 띈다. 바람이 불지 않았고 소리는 원래 잘 못 들어서 소리를 듣지 않았다. 보지도 않았다. 이질감이 들 땐 갑자기 머릿속에 느낌표가 생긴다. 내 앞에 나타나서 ‘이거 봐!’ 일깨워주는 느낌이다.”

6월 20일 세 명의 작가와 내가 만난 곳은 잠실창작스튜디오 바깥의 공원이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앞으로 세 달 간 이어질 대화의 물꼬를 텁고 ‘장애’가 내포하는 한계와 장애·비장애

사이의 이분법을 잊어버리기로 했다. ‘장애’라는 단어는 ‘육감’, ‘공감각’, ‘초능력’, ‘과잉 상태’와 같은 단어들로 모습을 바꾼 채 우리의 문장에서 점점 사라져갔다. 소리는 진동이 되었고, 청각은 촉각이 되었다.



“첫 만남 때 작가님들이 나에게 청각장애를 언제부터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 조심스레 물어보셨다. 태열로 청세포가 손상되어서 청각장애가 생겼고, 세 살 때부터 보청기를 끼고 언어치료를 받았고, 높은 음과 낮은 음을 구별하지 못해서 부모님께서 몸을 이용해서 말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셨다. 그 방법은 첫 번째, 입으로 숨을 약하게 혹은 세게 쉬면 발음이 달라진다는 것(예를 들어, “마, 바, 파”를 말할 때의 숨의 세기). 두 번째, 목 아래 가슴 쪽에 손을 대면 몸에서 나는 울림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소리는 공기의 진동에 의해 전달된다. 공기의 진동은 음파가 되어 귓바퀴에 모아져 고막을 진동시키고, 달팽이관 속의 림프액으로 전해지고, 림프액의 진동은 청세포를 자극한다. 청세포에는 미세한 털이 나 있다. 털이 자극에 의해 진동하기

시작하면 그 진동이 청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된다. 음파는 귓바퀴, 달팽이관, 림프액, 청세포의 털에도 도달하지만 머리카락에도, 손가락에도, 피부에 퍼져 있는 촉점에도, 몸에 나 있는 미세한 털에도 도달한다. 몸 안에 퍼져 있는 세포와 털들과 촉점이 공기와 만나 함께 진동하기. 진동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청각은 촉각이 되기도 한다.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 필요한 것은 신체이다. 내 신체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 손부터 시작해보자. 살짝 다가가 서로의 손이 닿고, 온도와 온도가 만나고, 나의 온도와 그의 온도가 같아진다.”

“우리가 느끼는 진동이 촉각과 맞닿아 있고, 촉각이 소리가 되고.”

“소리가 진동 스피커를 통해 전해질 때, 공간이 떨릴 수 있게.”

은설 작가님이 가슴에 손을 대고 목소리를 작게 내자, 다른 두 작가님과 나도 자신과 서로의 목 아래 가슴팍에 손을 대어보았다. ‘소리를 잊고 진동을 느껴보아야지.’ 목과 흉통의 미세한 떨림이 촉감으로 전해진 뒤 머릿속에 파동이 그려졌다. 그러나 흉통의 진동과 머릿속의 파동은 잔잔하다 못해 경미했고, 이걸 뚫고 나와 가장 크게 울리는 것은 내 목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소리를 듣는 것과 못 듣는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컸을 뿐 아니라 이미 나의 많은 감각들은 소리에 의해 정렬되어 있었다.

“저에게 소리나 진동이 개인적인 주제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에 저 개인은 거의 없고요, 만들어진 이미지라고 해야 할까, 이게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와 진동으로

공동의 글쓰기를 할 때 고민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청능주의. 소리 위주의 사회에서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경계의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첫 만남 이후 우리는 8월 말까지 진동과 소리를 주제로 공동의 글쓰기를 시도했다. 우리는 소리를 진동으로 받아들이는 감각을 능력으로, 명민함으로, 힘의 원천으로 다양하게 상상해보았지만 소리를 진동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장애와 제약과 한계로 해석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그러나 능력이든 한계이든, 귀를 통하든 손을 통하든, 소리는 원래 진동이었고 청각은 원래 촉각이었다. 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구분이 사회의 구조와 언어의 체계가 만들어낸 이분법일 뿐이라는 다소 낭만적인 명제가 우리 팀의 시작점이었다면, 우리의 대화에서 소리와 진동은 왜 다른 감각의 영역으로 분리되어야만 했을까? 우리는 왜 결국 장애에 의한 다름을 잊어버리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라는 근본적인 다름에서 시작해야만 했으며, 소리는 왜 그 자체가 아닌 진동이 되어야만 했을까? 같지만 다르고 분리되었지만 연결되는 소리와 진동, 능력과 한계 사이의 긴장 상태. 대화는 ‘다름’을 무언의 축으로 두되 다름을

말하지 않았을 때 더 부드럽게 흘러갔고, 이 다름의 축은 우리가 잊어버리려 했지만 결국 우리 네트을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존재하게 했던 이분법의 힘이 전제하는 바에 가까웠다. 그리고 처음 만나는 네 명이 그 이분법 안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찾고 협업해야 했을 때, ‘장애’라는 단어가 내포해왔던 사회적 취약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다름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소리가 아닌 ‘진동’이라는 새로운 단어로의 변환이 필요했다. 소리는 그렇게 진동이 되었다. 그러나 이분법을 규정하는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해서 공중을 떠돌고 있었다. 진동이 된 소리는 자유로웠을까?

귀가 눈이 될 때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날리는 거랑 나뭇잎 움직이는 거, 차가 지나가는 거. 이 모든게 저에게는 소리에요. 손의 움직임도, 수어도요. 바람 소리는 안 들려도 나뭇잎이 흔들리면 아, 바람 소리구나 상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촉각도 중요하지만 시각이 더 중요해요. 시각으로 보는 감각이 제일 큰 비중을 갖고 있어요. 시각을 배제하고 싶지만 배제하면 공포감이 와요. 청인들은 오히려 소리를 많이 들을수록 ‘아, 듣기 싫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안 들리기 때문에 눈으로 정보를 계속 캐치해야 하는 피로감이 있어요.”

공동의 글쓰기가 진행되던 두 달 동안 세 명의 작가와 나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만나 두 시간 정도 대화했다. 은설 작가님과 보경 작가님은 시각예술, 지혜 작가님은 공연예술, 나는 미술이론의 영역에서 작업해왔다. 대화에는 온갖 매체와 경험과

접근들이 섞이고 꼬여 있었지만 나는 우리가 맷는 관계가 결국 '언어'에 기반한 것이 아닌가 종종 생각했다. 언어는 들을 수도 있지만 볼 수도 있는 복합적인 매체여서 우리는 꽤 많은 시간을 청각을 시각으로 음성언어를 문자언어로 변환하며 보냈다. 종이에 직접 글을 써서 전달하기도 하고 가끔은 음성 인식 앱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 한 자 한 자 발음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변환은 동행하는 문자 통역사님을 통해 일어났다. 듣는 즉시 빠르게 타이핑할 수 있는 기술과 특수 키보드를 겸비한 문자 통역사님은 우리의 문장들과 얼버무림과 어색한 웃음까지 화면에 있는 그대로 드러냈고, 은설 작가님은 그것을 눈으로 빠르게 읽었다. 귀는 문자 통역사님의 손끝을 통해 눈이 되었다.

(정지혜) 그러면 은설 작가님, 그 공간 안에 풀실을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커튼처럼 이렇게 매달아놓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게 여러 개 있어요?

(김은설) 아, 여러 개예요. 여러 개인데 예를 들어서….

(강아지) 멍멍멍멍! 월월월! 멍멍멍!

(김은설) 어딨어요, 강아지? 아, 귀엽당~ 안녕~ 흥 흥 흥 흥

(전보경) 흥분했어, 지금. 화났어. ㅋㅋ

(강아지) 멍멍멍! 크르르르르르르…… 월! 멍! 크르르르… 멍!

(정지혜) 이거 너무 웃기다, 강아지. ㅋㅋㅋㅋㅋ 월월월월 ㅋㅋ

(전보경) 계속 짖고 있어요. 흥 흥

세 번의 만남 후 우리는 티슈, 싱잉볼, 진동스피커 등 소리와 진동을 함께 가지고 있거나 소리를 진동으로 변환하는 사물을 감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공동의 감각적 경험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언어로 변환되었다. 감각은 서로의 몸을 통한 뒤 이를 묘사하는 음성언어가 되었고 문자 통역사님의 손을 거쳐

문자언어가 되었다.

"소리가 큰가요? 작은가요? 고음인가요, 저음인가요?"

"하이톤이에요."

"소리의 움직임은 어떻게 돼요?"

"물결의 파동 같아요. 돌을 던지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둥, 하면서 퍼지는 느낌."

"약간 물감 스며드는 듯이."

"저한테는 거친 사포면을 만지는 느낌이었다가 점점 사포가 고와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맨들맨들해지는 느낌이에요."



소리를 통한 언어와 문자를 통한 언어 사이에는 약간의 시차가 있었다. 소리가 진동이 되어 귓바퀴로, 달팽이관으로, 림프액을 지나 청세포로, 청신경을 지나 대뇌로 전달되기까지는 약 1/500초의 시간이 걸리는데, 대뇌로 전달된 정보가 손가락을 타고 문자로 변환될 때 걸리는 유예 기간 동안 소리는 500번 이상 우리의 대뇌를 왔다갔다 하며 더욱 더 많은 대화의 공간을 열어둔다. 그래서 문자가 소리와 보폭을 맞추려면 간단해져야 한다. 그리고 간단해지기 위해서는 요약이 필요하다. 요약을

하면서 비껴나가는 정확도와 번역의 오차는 공중을 떠다녔다.

“짧게만 요약할게요 / 세 개의 작업들이 <큰 제목> 아래서

이어지는 것에 대해 대화 중이에요.

전시장 도면 설명 중 지금 저희 작가님 이야기 중 /

각자의 작업이자 세 명의 대화 /

오디오가이드 만들기 어렵다는 내용

얘기 중 설치안 이야기 중”

“작가님들 덕분에 살았네요. 감사해요. 속기 어플이 영망으로 나오네요….”

언어는 문자 통역사님의 키보드와 손가락을 거치고, 말하는 동시에 타이핑하느라 분주한 우리의 입과 손가락을 거치고, 속기 앱에 영망으로 나오는 문자의 파편을 거치고, 음파의 진폭과 주변 소음에 따라 주파수를 다르게 조정하는 보청기를 거쳤다. 다양하게 요약되고 굴절되는 우리의 언어. 그리고 음성과 문자 사이 단계마다 드러나는 미세한 시차. 우리는 이 굴절과 시차를 감수하고 언어에 의지했고 몸의 감각을 언어로 변환하여 공유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언어가 영위하지 못하는 정동의 공간이나 미처 말로 하지 못해 남겨진 문장들의 공간, 그리고 작업의 공간은 모두 개인이 소화할 영역으로 남겨두었다.

티슈와 풀실

8월 중간 보고가 끝난 후 두 달 간 우리는 10월 전시를 준비하며 보냈다. 제작 기간 동안 우리는 단체 카톡과 간간히 안부를 묻는 것 외 다른 만남은 가지지 않았다.

나는 우리가 다른을 잊어버리기로 함으로써 같음을

지향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같아지는 상상을 작업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구현해보려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처음부터 다른을 잊어버림과 동시에 다른의 잔상들에 대해서는 꽤나 관대했고 같은의 불가능성 또한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 사이 긴장 상태를 침묵 속 작업으로 풀어냈다.

우리가 마주한 다른의 잔상은 신체와 감각 기관의 차이에서 오기도 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각기 다른 매체로 작업해오며 몸과 마음에 축적되어 왔던 다른 경험에서 오기도 했고, ‘진동’이라는 같은 단어에 대한 비슷하고 다른 해석에서 오기도 했으며, 어긋나는 문장과 이에 대한 적당한 침묵에서 오기도 했다. 이런 잔상들은 우리가 나눴던 대화와 공동의 글쓰기와 음성 인식 앱을 이리저리 비껴나갔지만 결국 개인의 영역에 남아 여러 형태로 번역되어 나타났다. 티슈와 풀실. 같아지려는 의지로부터 다른에 대한 고찰로 방향을 틀었을 때에만 가능한, 사람과 사람을 넘어 존재 자체의 다른에 대한 질문들. 같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알게되는 다른 존재들과 감각적으로 소통해보기. 다른의 근원이었던 소리 자체를 잊어버리기. 혹은 같음이 아닌 ‘공통되기’[◆]에 대한 믿음.

“티슈가 엄청 예민해요. 얘가 떴다가 내려오는 박자도 어디에 올려놓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고,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에요. 얘를 알려면 진짜 1년을 다 보내야 할 것

◆ 이 글에서 ‘공통되기’의 가능성에 대한 상상은 공동 자원의 생산과 관리의 공간인 커먼즈(commons), 그리고 이를 과정 중심적으로 해석한 커밍(commons)에 대한 사유로부터 비롯되었다. 커밍은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자원과 사상, 가치를 교환하는 유기적이고 동역학적인 관계망의 형태이며, 각 존재와의 마주침(특히 공유지의 권리를 박탈당해왔던 사회적/생물학적 악자와의 마주침)이 만들어내는 인식의 변화이기도 하다. 이는 상이한 존재가 마주침을 통해 변용을 일으키는 과정에 주목한다는 면에서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동일시하는 ‘동화(assimilation)’의 과정, 혹은 다른 자체를 초월해버리는 ‘보편화’의 과정과 구별된다.

같은, 그리고 내가 손에서 얘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진짜 미세하게 방향이 다 결정돼서 이렇게 살짝살짝 움직이더라도, 내 몸의 각도가 이만큼만 달라져도 방향이 확 틀어지거나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기까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약해요.”

지혜 작가님은 티슈를 ‘예민한 것’과 ‘세밀한 힘’으로 자주 묘사한다. 티슈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은 엄청난 주의집중력을 요한다. 엄청 열심히 봐야 하고, 손톱 끝까지 적당한 힘과 균형을 놓지 않아야 한다. 얇은 막이 된 티슈는 주변의 미세한 바람과 공기에 따라 때로는 드라마틱하게 때로는 끈적끈적하게 움직인다. 이 복잡한 생명체에게 원하는 움직임을 주려면 우리 신체는 꽤나 많은 힘을 주고 꽤나 많은 조정을 해야한다. 그리고 하나 더 필요한 것은 이 사물에 대한 우리의 진심이다.

“얘가 소리도 보여주고, 동력을 받아서 스스로 움직이거나 혼자 방향을 결정하기도 해요. 얘가 뭔가 살아 있는 생명체인 것 같고, 여러 가지 감각들이 티슈 한 장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얘한테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것도 놀라웠던 것 같아요.”

보경 작가님은 지혜 작가님과 티슈와 함께 작업했다. 지혜 작가님이 티슈가 살아 움직이는 과정과 이 생명체에 대한 ‘진심’, 그리고 이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보경 작가님의 관심사는 일상의 물건이 비밀을 가진 소중한 사물로 전환되는 지점에 놓여있다. 표면에 놓여 있는 티슈는 그림자만 살짝 바뀌고 마는 때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죽어 있는 것이 움직이는

신체와 카메라의 힘을 받고 진동하기 시작하고, 감각 기관의 빠른 작동을 거쳐 주변의 공기와 호흡하며 동력과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다.

“느린 움직임과 약한 떨림에 응축되어 있는 에너지, 힘, 그리고 그 신체성이 공간과 연결될 때. 큰 동작이 있어서 강렬한 게 아니라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에서 느껴지는 응축감과 집중감. 사물 자체와 질감을 카메라로 잡는 것도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지혜 작가님이 물론 몸으로 반응하실 때도 있지만 숨을 많이 사용하셔서 입으로 숨쉬는 것과 말하는 장면을 많이 촬영했어요. 푸, 트, 크, 흐, 이런 식으로. 그런 진동으로 인해서 휴지가 흘날리는 장면을 찍었어요.”

은설 작가님은 풀실로 작업했다. 작가님은 티슈와 풀실을 교차하면서도 이 둘을 철저하게 분리했다. 두 겹을 한 겹으로 나누면서 더 얇아진 티슈, 그리고 티슈처럼 주변의 호흡에 따라 흔들리는 가느다란 풀실. 그러나 티슈가 불투명한 흰색이라면 풀실은 최대한 투명하게. 티슈가 신체에 닿는다면 풀실은 공중에서 떠다니며 진동하도록. 그렇게 전시장 천장에 매달린 풀실 덩어리들은 소리보다는 공간이 만드는 공기 자체의 흐름에 의해 진동했다.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때 진동으로 소리를 느끼는 방법은 첫 번째, 입으로 숨을 약하게 혹은 세게 쉬면 발음이 달라진다는 것. 마, 바, 파를 말할 때의 숨의 세기. 두 번째, 목 아래 가슴 쪽에 손을 대면 몸에서 나는 울림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다름을 전제로 구축된 공간에서 다름과 다름 사이를 연결해야 할 때 필요한 것은 ‘같음’보다는 ‘공통되기’에 대한 믿음이다. 그런데 이 공간에서 누군가 같아져야 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몫일까? 우선 경계들 사이에 이것저것 놓아본다. ‘진동’이라는 같은 단어를 놓아보고, 티슈와 풀실의 같지만 다른 물성을 같아지게끔 놓아보고, 소리보다는 공기 자체로 진동해보려 하는 풀실 덩어리를 사이에 둬려 숨소리가 나오는 스피커를 놓아본다.

“가느다란 풀실로 공간에서 올리는 진동과 지혜 작가님이 퍼포먼스하시며 나오는 에너지나 공기의 흐름이라던지. 휴지처럼 약한 풀실이 작가님들과 대화하는 거랑, 숨쉬는 거랑, 주고 받는 감정을 다 담는다고 생각하며 작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퍼포먼스, 영상, 소리, 진동,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의 관계가 투명하게 연결되기도 하고 막이 되기도 하구요. 다른데 다 연결되어 있는 개별의 존재라는 생각을 해요.

공통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어떻게 세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원래 방식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방식을 수용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공통의 시작점이 진동이라는 한 단어였고, 자신이 생각하는 진동의 범위 안에서 다르게 구현하는 방식일 수도 있겠어요.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다 섞여 있고, 결국은 한 이야기가 아닐까.”

“같은 공간에 작가님들과 있으면서 서로 다르게 느끼고 경험하지만, 결국은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나 감각,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믿고 맡겨보려고 해요.”

김은설, 전보경, 정지혜 작품 소개

김은설,
〈공기는 귀가 되고,
귀는 눈이 된다〉,
복합매체, 가변크기, 2020.
66–6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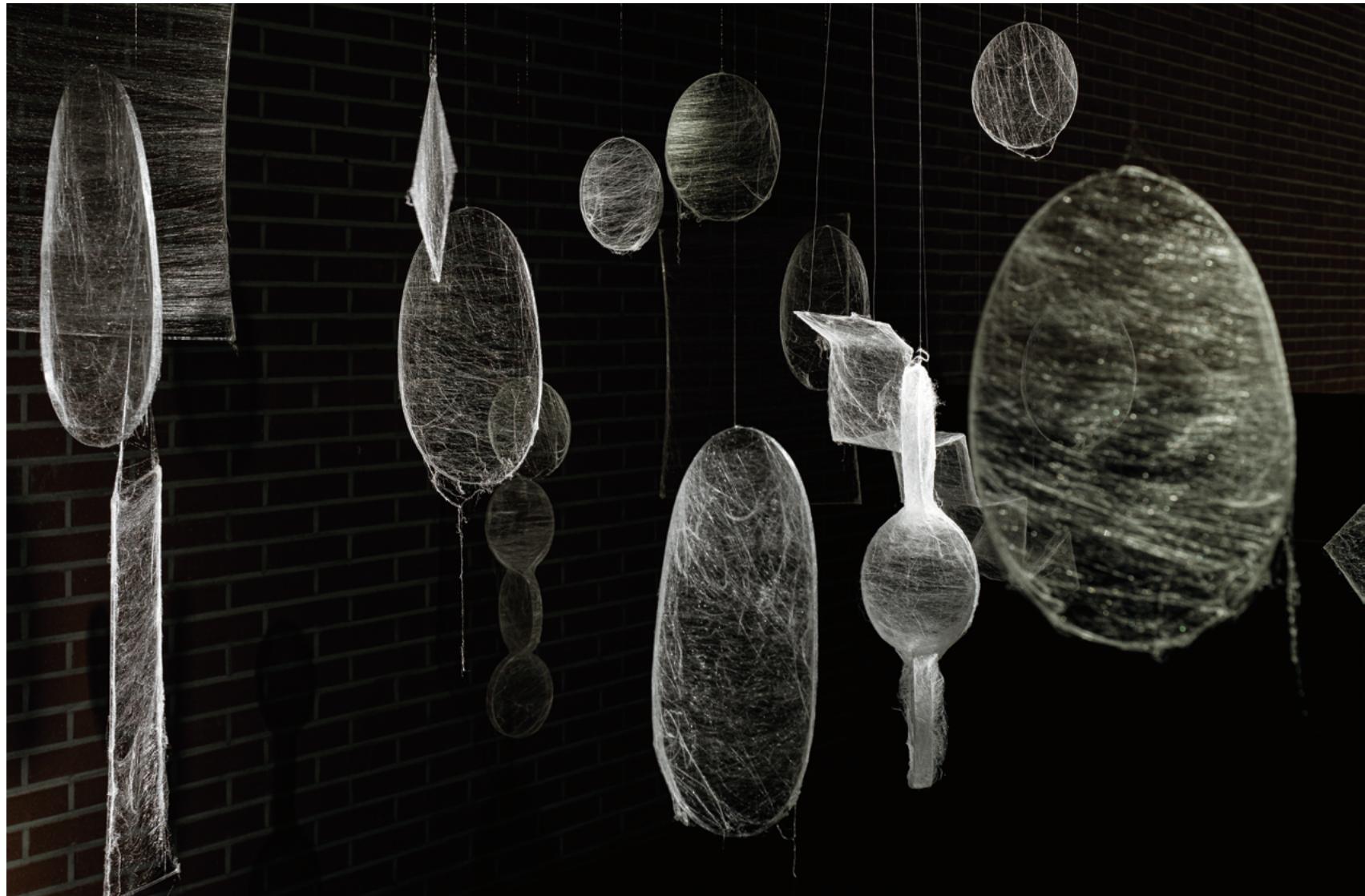
전보경,
〈공기는 귀가 되고,
귀는 눈이 된다〉,
2채널 영상, 8분, 2020.
68–69p

전보경,
〈공기는 귀가 되고,
귀는 눈이 된다: 프네우마〉,
사운드, 2020.

정지혜,
〈공기는 귀가 되고,
귀는 눈이 된다〉,
안무, 퍼포먼스, 15분, 2020.
70–71p

가슴과 목에 손을 얹고 입술을 열어 무엇이든 말해보자. 피부 아래로부터 진동이 전해진다. 이때 소리는 진동을 통해 만지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감각으로 변화한다. 소리를 진동으로 감각하며 언어와 주변의 상황을 파악했다는 김은설 작가의 경험은 참여 작가들의 대화에 주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김은설, 전보경, 정지혜는 보이지 않는 감각을 드러내는 예민한 신체의 움직임에 주목한다. 세 작가는 이런 감각의 전이를 “공기는 귀가 되고, 귀는 눈이 된다.”라는 문장으로 번역했다.

김은설은 손가락이나 손바닥에 풀을 붙였다 떨 때 생기는 얇은 풀실로 세밀한 설치 작품을 제작했다. 어두운 공간 속에서 이 ‘풀실놀이’ 조각은 공중에 가볍게 떠 있다. 얇은 바람과 진동에도 반응하는 이 조각은 사람의 숨소리를 담은 전보경의 사운드와 공명하며, 이 호흡은 전보경의 영상 작품과 연결되어 있다. 무용가 정지혜와 함께 작업한 영상은 보이지 않는 소리, 떨림, 공기의 미세한 흐름마저 감지하는 연약한 사물과 몸짓을 담았다. 실제 전시 공간에서는 영상이 설치된 공간과 이어진 긴 복도를 따라 전시 기간 중 정지혜의 퍼포먼스가 열렸다. 소규모의 참여자들과 함께 진행된 이 퍼포먼스는 전보경의 영상 작품 속에도 등장하는 한 장의 티슈를 지니고 복도를 따라 짧은 산책을 하며 신체를 둘러싼 다양한 감각에 더욱 집중해보는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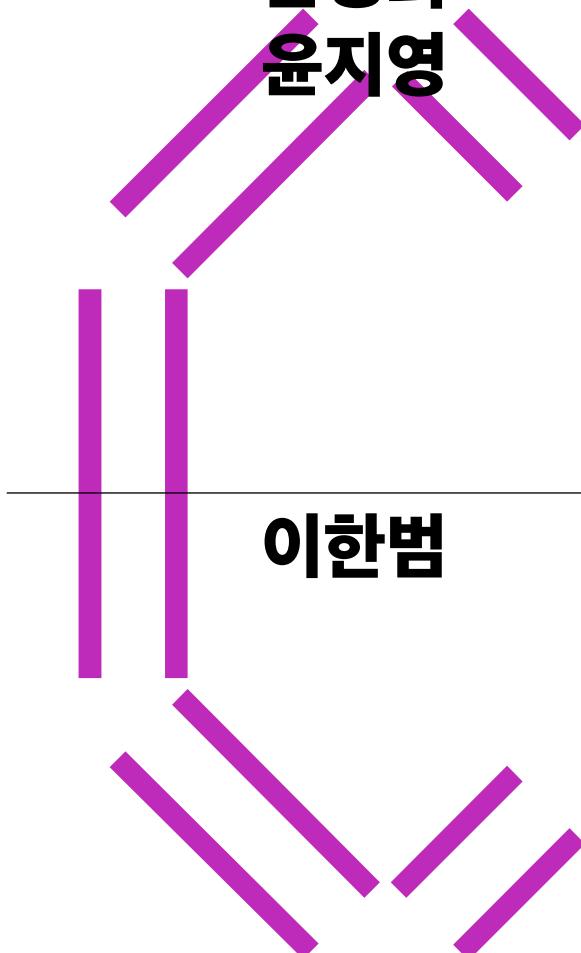
어릴 때 부모님께서 목, 가슴, 입에서 나는 소리의 진동을 만지게 하셨다. 이런 느낌이 '소리'라고 하셨다. 나를 바라보면서 소통이 잘되었으면 하며 짓는 표정도 함께 기억에 남았다. 차가 지나가면 나는 진동, 누군가가 다가오면 느끼는 기척, 공기의 흐름에 따라 피부에 닿은 소리를 느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 촉각으로 느낀 소리, 소리를 필터링해서 들려주는 보청기 소리, 모든 게 진동이었다. 신체의 감각으로 관찰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진동적 해석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진동은 청각, 시각, 후각, 촉각, 미각으로 바뀌고 감정도 진동으로 느낀다고 한다. 언제 어디에나 있는 공기, 진동, 물질의 움직임, 누군가의 눈빛, 표정, 보이지 않는 감정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불고 떼는 감각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감정이 깃든 <풀실놀이>에 공기, 소리, 진동을 담아 배경을 담았다.

생명과 비생명 모두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는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 진동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 공기의 움직임으로, 소리의 파동으로, 시각적 떨림으로 진동의 현상이 발현될 때 우리는 개인이 가진 오감의 역능에 따라 모두 다르게 느낀다. 비생명은 실재하고 능동적으로 활기 넘치는 존재이기에, 생명과 만날 때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감각의 역동성을 만들어낸다. 신체와 비생명의 만남을 통해 <공기는 귀가 되고, 귀는 눈이 된다>는 서로의 몸이 닿아 서로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스스로 끌어냄으로써 움직이지 않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보이지 않는 면을 가시화하고, 들리지 않는 소리를 확성하고자 시도한다.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서로의 떨림을 주고 받는 공기적 상태에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제 5의 감각은 무엇일까?

이번 퍼포먼스는 건물 내부를 산책하면서 한가지에만 집중하여 감각하는 것이 아닌 그와 연결된 다양한 감각들을 통해 변환된 공간, 사물, 몸의 움직임들을 동등하게 인식하고 탐색 해보고자 한다. 공간의 형태와 분위기, 소리의 울림, 호흡으로 변화되는 몸, 작은 티슈(사물)의 떨림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움직임의 파동은 또 다른 시각, 청각, 촉각들로 연결되고 뻗어나간다. 평면적인 것이 아닌 상호작용 안에서의 입체적 감각은 어려한 감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참여자들은 이를 수행하면서 퍼포먼스를 자신만의 경험으로 만들어 나가며 확장된 감각을 경험한다.

박찬별
손명희
윤지영

이한범



기록의 글

더위가 사그라들어가는 9월 중순 즈음 작업실로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다. 노란색 봉투 안에는 다섯 장의 그림 엽서가 들어 있었다. 단단한 초록색 잎을 가진 식물과 노란 꽃, 껍질이 두툼한 과일이 그려진 정물화 몇 개와, 굵은 선으로 속 그은 산능선 풍경화 같은 것들이었다. 그중에서 두 장의 그림에는 읽어낼 수 없는 그리스어가 적혀 있었다. 무슨 말인지 궁금해 번역기를 돌려 보기도 하고 생경한 그리스어 알파벳을 찾아 이리저리 조합해보기도 했지만 모두 신통치 않아 이내 읽기를 포기했다. 대신 오래 바라보는 일을 선택했다. 다섯 장의 그림 엽서는 작업실 컴퓨터 옆 독서대에 놓였고 나는 종종 뭔지 모를 글자들과 소박한 그림을 들여다 보았다. 이 다섯 장의 그림 엽서는 윤지영 작가가 나와 손명희 작가, 박찬별 작가에게 보낸 것이었고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에 답장을 하기로 했다. 답장을 하기로 했지만 어떤 답을 보낼 수 있을지는 잘 떠오르지 않았다. 입 속에서 말도 아닌 무언가 만을 계속해서 웅얼거렸는데 아마 이런 시간이 꽤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다. 손명희 작가와 박찬별 작가는 어떤 답장을 보냈을까? 아마 그들도 웅얼거리고만 있을지 모르겠다. ‘편지’는 공동 창작 워크숍이 진행되던 중반 즈음 세 작가가 논의하여 선택한 협업의 방법이었다. 편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하는 바가 다른 것 같기도 했지만, 무언가를 보내고 받는다는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각자의 일상을 서로 나누었던 여름 내내의 긴 시간이 무색할 만큼 9월 즈음부터 대화는 자연스레 줄어들었다. 편지를 쓰고 있겠거니 짐작만 할 뿐이었다.

평생을 모국어 나라를 떠나 살아온 다와다 요코는 읽을 수 없는 언어를 가진 나라에서 그 말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선은 무엇이든 유심히 관찰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면 뜻을 담은 단어와 서술을 만드는 문법 이외의 예상치 못한 부분들에서 많은 의미를 더듬어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트리스탄 굴리 또한 『산책자를 위한 자연수업』에서 이와 (상관 없지만)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발디딘 환경의 현상을 추측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인지하는 지형지물의 선명한 특징뿐만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특징을 찾아내어 그 환경의 복잡한 특성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를 일컬어 “사물을 보고 알아차리는 기술”이라고 한다. 소설가인 다와다 요코와 자연 탐험가인 트리스tan 굴리는 서로 마주칠 일이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낯설고 불가해한 세계를 찾아 스스로 계속해서 떠나간다는 점에서 아니 그렇게 계속해서 떠나고 헤매야만 하는 것이 세계를 진실로서 마주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일임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다른 인식의 방법을 사랑한다는 점에서는 둘도 없이 가까워 보인다. 타인 또한 알 수 없는 세계라 할 수 있다면, 그와 함께 하는 것 또한 끊임없이 그에게서 떠나고 동시에 그 안에서 헤매는 일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초대, 안내, 방문

박찬별, 손명희, 윤지영 작가는 몇 번의 만남 이후 한 명씩 돌아가며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했다. 뚜렷한 목적이나 과제가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선뜻 확신이 서지 않는 막막함에서 비롯한 결정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함께 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며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는 호기심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곁으로 보였던 들뜸 안에는 좀 더 무거운 것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삶의 궤적에 따라, 인식의 한계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고민하는 와중이었기 때문이다.

박찬별 작가가 이 워크숍에 참여하며 “나만의 작업, 고집, 색깔, 생각에서 벗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이를 “배움”이라 표현한 것은 아마도 이러한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그는 늘상 다른 사람의 눈과 그 눈에 비치는 빛의 형태를 궁금해 했다. 손명희 작가는 프로그램의 시작에서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이 질문한 육감, 그러니까 미지의 다른 감각이라는 개념에 강하게 매료된 것처럼 보였는데, 오로민경 작가가 진행한 2차 전체 워크숍 〈하나의 존재를 만나는 여러 갈래의 감각들〉의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그는 장애인의 예술에 대한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제도나 시설의 측면에서의 고려도 중요하지만 창작자가 다양한 감각을 탐구함으로써 또한 가능할 것 같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손명희 작가는 자석에 이끌리듯 프로그램 동안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대입하며 작업을 이어 나갔다. 인식의 한계를 인지할 때 타인을 요구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타인은 나에게 새로운 것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그 존재는 내가 구성된 방식을 스스로 되돌아보게끔 한다. 존재감만으로도 주는 영향이기도 하다. 때문에 세 작가의 워크숍은 각자에게 익숙한 감각으로 타인을 초대하는 일인지도 했지만 동시에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서 거리를 두는 일이기도 했다.

세 작가는 그림을 그리고, 몸을 움직이고, 조각을 하는 등 저마다 주로 다루는 매체가 다르다. 이 차이는 자연스레 자신에게 익숙한 감각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대화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대화에서 매체 자체는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매체의 문제보다 더 선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에서 벗어나 있는 자기 자신의 특정한 신체적 조건이었다. 작가들은 바로 그 저마다의 조건 안에서 자신이 다루는 매체와 관계 맺고 있었기에 누구도

매체와 감각의 문제를 도식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자기 자신 또한 어떤 매체에 있어서 환대받지 못하는 와중 인식이 형성된다는 것은 꽤나 복잡한 문제였었고 워크숍은 그 복잡함을 공유하는 일이기도 했다.

첫 번째는 향이 형태로 바뀌는 일이었다.

조각 작업을 하는 윤지영 작가는 우리에게 신체를 캐스팅하고 향을 만들어 보는 일을 제안했다.

“제가 냄새에 예민한 편이었는데, 스트레스로 후각에 한동안 문제가 좀 있었어요. 다시 후각이 돌아오고 있어서 좋은 향 맡는 게 요즘 제 즐거움이라... 좋아하는 냄새, 향기를 묘사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상상해서 찾아내보는 것으로 시작해 봐요!”

우리는 저마다 좋아하는 향을 상상하며 묘사했고 감정을 전달했다.

“저는 상큼달달한 향 좋아해요. 향기가 센 것들은 좋아하지 않지만 은은한 향, 시원한 향을 좋아해요.”

“저는 활엽수가 가득한 숲의 흙냄새를 좋아해요. 시원한 온도일 때의 흙냄새. 제초기를 돌리고 나서 싸하게 퍼지는 풀냄새도 좋아하고...”

“야생 장미 그득한 곳에서 생생하게 막 올라온 향이요. 비온 후의 깊은 숲에서 다채롭게 올라오는 우디, 앤버, 패출리...계열의 향을 좋아하는 편이기는 해요.”

워크숍 당일, 윤지영 작가는 우리의 묘사를 듣고 향을 만들어 왔다. 그는 한명 한명의 모습과 움직임, 소리 등을 돌아보며

각자에게 맞는 향을 찾으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윤지영 작가의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온갖 향들이 뒤섞여 콧속으로 밀려들어왔다. 내가 상상했던 그 향을 단숨에 이해할 수 있었는데, 먼 곳에서 아지랑이처럼 떠 있던 섬이 성큼 눈앞에 다가온 느낌이었다. 손명희 작가는 스튜디오 한쪽에 앉아 복숭아뼈를 본뜨고 있었고, 박찬별 작가는 자신의 신체 일부가 떼어내어 형상화 된다는 것이 섬뜩하다며 향수병들의 향만 맡고 있었다. 늦게 도착한 나는 서둘러 앉아 무릎과 귀를 본떴다. 신체를 본뜨기 위한 실리콘은 서늘하고 불편했다. 무겁고 무서웠다. 우리는 그런 기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며 실리콘이 굳어가기를 기다렸다. 작업실 한켠에는 윤지영 작가의 이전 조각 작품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만져볼 수 있었다. 조각의 질감을 만져보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윤지영 작가는 우리에게 향수 한 병과 향을 뿌린 편백나무 베개를 주었다. 그것을 집에 갖다 놓자 오랫동안 향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내가 상상하던 향도 있고 묘하게 낯선 향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향도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다. 그 간극에서 타인이 나를 이해하려 한 작은 신비가 비쳤다. 얼마 뒤 윤지영 작가는 본떠낸 몰드에 염료를 섞은 석고를 부어 굳힌 모습을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다. 내게서 떨어져 나간 신체를 보는 일은 어색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향이 형태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그리 낯설지만은 않았다.

“한쪽 귀를 귀마개로 막으니 반쪽 세상이 잘 안보이는 것 같았다. 귀에 댄 컵 안으로 진득진득한 액체가 흘러 들어와 귀를 풀 담궜고 기억에는 없는 차가움이었다. 명희 씨와 지영 씨가 번갈아가면서 컵을(귀를) 붙들고 있어 주었는데 어깨에 힘을 빼고 나를 붙들어주는 힘에 머리를 기댔더니 편했다.

나를 받아주는 힘에 뭔가가 쑤욱 저쪽으로 넘어갔다. 모양을 뜨는 시간은 패 길었고 몸이 슬그머니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지영 씨가 머리를 숙이라고 해서 허리를 쑥 세웠다. 치과에 가서 이를 치료할 때, 나도 모르게 점점 오므리드는 입에 대고 아— 벌리세요 하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호다닥 입을 다시 크게 벌렸을 때의 그 새삼스러움과 제자리를 찾은 듯한 그런 기분이 떠올랐다. 집에 도착해서 거실 바닥에 목침을 베고 누웠다. 어라 아깐 분명 이 향이 아니었는데. 시큼하고 서늘하네. 오 나쁘지 않은 생각하는 중이었는데 픽 잡들어버렸다.”

두 번째는 몸과 움직임이었다.

손명희 작가가 움직임 워크숍을 제안했고 우리는 저마다 어색한 신체의 감각과 움직임에 대해 설명했다.

“제가 정말 잘 안 쓰는 근육 써보고 싶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절대로 안 할 것 같은 움직임을 생각해봐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유연성을 잃어서 유연성을 한번 끌려보고 싶어요. 무대 공포증이 있어요. 조명이 아주 밝게 켜진 넓은 무대에 누워있으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해가 낮아져가는 늦은 오후 우리는 서울무용센터의 넓고 밝은 방에 모였다. 손명희 작가는 우리가 단체 채팅방에 매일 공유했던 음악을 한데 모아 틀어주었다. 드러눕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면서 긴장을 풀었다. 우리는 각자 현재 자신의 몸에 관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했다. 내 몸의 상태를 설명한다는 것부터 너무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몸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명희 작가는 그런 우리에게 먼저 신체에 대해 정확하게 지각하는 일을 안내했다. 바닥에 누워 온 몸을 이어서 팔을 천천히 돌리는 것부터가 시작이었다. 어깨를 축으로 삼아 팔을 쭉 뻗어 큰 원을 그리는 일은 팔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다. 온 몸이 유기적으로 부드럽게 흐르듯 함께 움직이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 균형을 잃고 엎어지거나 허리와 발과 목에 힘이 빠빠하게 들어가기 일쑤였다. 그렇게 평소에는 잘 하지 않는 단순한 움직임을 통해 몸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벽을 보고 서서 몸을 털어 내 보는 것이었다. 무게중심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며 몸에 힘을 빼기를 연습했다. 그리고 손명희 작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걸어보기를 요청하며 걷는 감각에 집중해보기를 원했다. 평소 걷는 습관을 살펴봐 주며 각자에게 좀 더 자연스럽고 가벼운 걸음걸이를 찾아가기를 유도했다. 내게 편한 걸음에서 조금만 다르게 걸으려 해도 온통 신경 써야 할 것 투성이였고 힘이 많이 들었다. 그렇게 걷기를 연습하는 와중, 손명희 작가는 걷다가 누군가와 마주치면 눈을 맞추고 난 뒤 방향을 트는 규칙을 지시했다. 윤지영 작가는 걸으며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굉장히 어색해 했다. 그 때는 우리 모두 웃어 넘겼지만, 윤지영 작가는 후에 이에 대해 “몸이 어떻게 놓였는가, 어떤 상황에 내가 있는가에 따라 나의 태도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아마 손명희 작가의 워크숍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경험으로의 안내였을 것이다. 들여다보지 않았던 신체 감각에 호흡을 내어 주고, 몸이 움직이는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것. 그러니까 늘 뻔하던 것을 새삼스럽게 만드는 위치였다. 이 워크숍의 마지막 미션은 가상의 벽을 가진 정육면체를 상상하고 그 안에서 육면체의 꼭짓점을 이으며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었다. 나는 내 손과 발이 닿을 수 있을 만한 자그마한 공간을 상상하며 천천히 움직였는데, 박찬별 작가는 그 벽을 부수듯 크게 움직이며 자신의 공간을 넓혀 나갔다. 인상 깊은 장면이었다. 움직임 워크숍을 마치고 우리는 손명희 작가의 제안으로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백련산에 올라갔다. 인적이 드문 어두운 산 속 체육공원에서 우리는 잠시 동안 말없이 각자 자리를 잡고 가만히 있었다. 어둠속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형체들, 온갖 소리들이 몰려왔다. 그 시간은 타인에 의해 주어진 나의 시간이었다. 나의 존재감이 약해지고 주변의 소음에 녹아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마지막은 보기였다.

“제가 같이 하려고 하는 워크숍은 저의 불편한 눈을 체험해보는 것이에요. 시야를 방해하는 물건들로 좋아하는 풍경이나 사물을 보고 그려보는 것을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안경같이 쓸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쓰고 걸어보고, 어떤 느낌과 감정이었는지 공유하고 싶어요.”

박찬별 작가는 자신이 이전에 진행했던 워크숍 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종이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구멍을 통해 보이는 것은 세상의 아주 작은 부분이었다. 우리는 잠실창작스튜디오에 모여 박찬별 작가가 안내하는 대로 각자의 안경을 만들어 보았다. 여러 재료들이 있었는데, 불투명한 비닐은 꼭 쓰라고 했다. 가능한 안보이게 하는 안경을 만드는 일이 새삼 어색했다. 우리는 여러가지 불투명한 재료들을 자르고 덧붙여 안경을 만들었다. 그 안경은 사물의 윤곽을 없애고 빛과 그림자만 언뜻언뜻 비치는 두려운 세계를 내놓았다. 우리는 밖으로 나가 그것을 쓰고 걸어 보았는데, 안경은 쉽게 걷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몇 발자국을 걷는 것이 고작이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만든 안경을 바꿔 쓰고 걸어보기도 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 안경을 쓰고 눈에 비친 세계를 그려보았는데 거기에는 대체로 형태는 없고 어떤 존재감만 있었다. 빛과 어둠, 어떤 색들.

“지영 작가님이 자기가 만든 안경을 쓰고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서, 한쪽은 빛이 강해서 노란색, 주황색으로 보이고 어두운 쪽으로 갔을 때는 나무들이 많아 초록빛으로 보인다고 했을 때 공감을 많이 했다. 내가 인식하고 있던 세상도 그런 느낌이어서 와닿았다.”

일상의 공유, 매일의 과제

워크숍 이외에도 우리는 일상을 공유하곤 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낯선 처음 만난 존재들이었고, 아는 바가 없었다. 서로를 잘 알고 무언가를 같이 만들어 내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했다. 하지만 그렇기에 조금 더 의식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을 꺼내어 보려고 노력했다. 가장 손쉬운 것은 음악을 공유하는 것이었다. 내가 즐기는 것을 보내고, 나라면 잘 몰랐을 것들을 받았다. 내가 세 작가의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나는 몇 가지 매일의 과제를 제안했고 저마다 하나씩 과제를 내기를 제안했다.

- 매일매일 생각하기, 되돌아보기, 이어보기
- 함께 쓰는 일기. 만난 날에는 되돌아보고, 만나지 않은 날에는 느끼고 생각한 것과 나누고 싶은 말을 공유 문서에 적는다.

● 좋아하는 글을 손으로 필사하여 공유하기

- 이야기, 시, 가사, 대사 상관없음. 분량은 한 문장에서부터 한 문단까지.

윤지영 작가는 다음과 같은 매일의 과제를 주었다.

● 양 손의 엄지를 교차해서 걸고 나비처럼 만들어 가슴에 올린 후 가슴을 톡톡 두드려주며 ‘괜찮다’고 소리내 말합니다. 가장 약하다고 생각되는 몸 몇 군데를 만지며 고맙다고, 혹은 미안하다고 말해줍니다. 기분이 어떤지 얘기해주세요.

손명희 작가는 다음과 같은 매일의 과제를 주었다.

●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 20점 채우기
- 포옹 5점, 손잡기 3점, 말 2점, 글/문자 1점, 이모티콘 0.5점

박찬별 작가는 매일의 과제를 주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종종 눈을 사진 찍어 보내곤 했다. 박찬별 작가는 눈 수술 이후 다른 사람의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게 되었다고 말했고,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다른 눈을 보는 것을 즐거워해 했다.

매일의 과제는 의무가 아니었기에 차곡차곡 쌓이지는 않았다. 윤지영 작가는 “다양한 워크숍과 데일리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알게 되기도, 더 이해하기도 했다.”며, “양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오히려 줄인 것 같기도 하다.”고 되돌아봤다. 하지만 나는 이해나 이해가 과제가 촘촘히 수행되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때문에 비롯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 표면 아래에 있었던

것은 프로토콜의 부재였는데, 애초에 이 프로토콜 없음이라는 기획 때문에 세 작가는 한 자리에 모였던 건지도 모른다. 이들은 근본적으로는 ‘공동 창작’에 대한 이해와 요구부터 달랐는데, 누군가는 과정에서의 유대와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누군가는 그럼에도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서 놓치지 않았다. 또 누군가는 즉흥적으로 끌리는 것에 몰두하여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하기를 바랐다(물론 모두 이런 여러 마음이 동시에 혼재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저마다 그 마음의 지분은 달랐다). 작가들은 종종 자신들을 왜 한 팀으로 만들었는지 농담처럼 묻곤 했는데, 아마 그들 스스로도 통상적인 공동 창작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프로토콜이 그들 사이에서는 없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들과는 다른 역할을 가진, 그들 서로 간의 거리보다는 한발 더 먼 거리에서 함께하던 내가 그 부재의 자리에서 그들을 교통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 같았기에 나는 보다 적극적으로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모든 담론적 상황에서 프로토콜 없는 대화는 공허해지기 일쑤다. 프로토콜 없음이 종종 관계와 견해를 열어두는 이상적인 공동체적 양태처럼 다뤄지기도 하지만, 사실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프로토콜의 부재는 오히려 더 쉬이 권위의 출현을 종용할 수도 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은 프로토콜은 부재의 상황에서 질서가 생기는 과정에 대한 무척 현실적인 묘사일지도 모른다. 어느 사회든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교한 프로토콜을 설계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다른 위상에 있는 주체들의 발화는 공통의 영역에서 마주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논의의 주체가 어떻게 배치되느냐이다. 프로토콜은 대개 효율을 위해 설계되고, 자연스레 특정 주체들의 담화만이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프로토콜이 없는 상황에서 세 작가들은 서로에게 향하는 따뜻한 마음이 깊어지는 것과는 반비례로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온도차가 더 커져 갔다. 나는 이들이 ‘공동 창작’이라는 목표에 있어서 지금 현재 너무나도 상이한 입장과 위치, 감정과 경험, 속도와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상이함들을 협상하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자기 자신에게 더욱 중요한 것에 중심을 두는 함께 하기의 방법을 찾아보기를 바랐다. 그러니까 상이함의 위상을 정렬하는 장치를 협의하기보다는 그 간격이 오히려 생성의 힘이 될 수 있는 방식을 그려보았다. 조금 다른 형태의 프로토콜을 제안한 셈인데, 그건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이념이라기보다는 서로 먼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느린 대화의 이념이었고 이 느림은 타인에 대한 번역(혹은 해석) 행위를 프로토콜에 위임하지 않고 스스로의 임무로 설정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일상과 순간의 감정, 생각을 즉각적으로 또 아무리 성실히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간의 거리를 실감했다. 수평선 너머의 보이지 않는 땅으로 부치는 편지는 그 거리를 인정할 때 가능하다. 한밤중의 한강을 보고 싶다는 박찬별 작가의 제안에 우리는 깊고 검은 물가에 앉아 이런 편지의 의미에 대해 처음으로 얘기를 나누었다.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합의의 불가능성을 인정하는 순간이었는데 아마도 그것은 각자의 축적된 삶의 경험과 미학적 입장에 뒤따른 것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 달여간 서로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자신을 되돌아보며 서로 사이에 놓인 어떤 거리에 대해서 보다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암암리에 깨달았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을 중심에 두고 편지 형식을 빌어 각자의 작업을 보내고 타인의 작업을

받는 <서신-교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렇게 속도와 무게와 반경의 차이를 없애기보다는 이해해 가기로 한다.”

“<서신-교환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말로 전하지 못했던 것이 전해지길 기대했던 것 같다.”

아직 오지 않은, 보내지 못한 편지

세 작가는 각자의 작업에 관한 전달의 규칙을 만들었다. 규칙을 공유하고 각자의 작업을 위해 저마다의 자리로 돌아갔다.

● 박찬별

1. 8월 10일 하나의 그림을 단톡방에 공유한다.
2. 각자의 방식으로 찬별의 그림에 답하는 창작물을 만든다.
3. 각자의 작업을 찬별에게 개인적으로 전달한다.
4. 작업을 찬별에게 전달하면서 본인의 작업을 누구에게 전달할지 찬별에게 알린다.
5. A는 직접 C에게 본인의 창작물을 전달한다.
6. A의 작업을 전달받은 C는 그 작업에 반응하여 A, B혹은 찬별에게 새로운 창작물을 전달한다.
7. 9월 10일까지 무한루프

● 손명희

1. 세 분에게 쓴 편지는 전시장으로 보내겠습니다.
2. 언젠가 이 편지가 생각나시면, 저에게 텔레파시를 보내 주십시오.
3. 주파수를 올리고 있겠습니다.

● 윤지영

1. 마주한 어떤 정경이나 상황 자체에 관한 감상을 표현한 창작물을 소포로 보낸다(9월 10일 발송).
2. 수신자는 그 창작물을 살펴보고 윤지영의 마음을 가늠해보는 글을 하나 적는다.
3. 그것에 반응하는 창작물을 하나 만든다(매체 제한 없음).
4. 수신자는 &가늠하는 글&과 &반응 창작물&을 다시 윤지영에게 보낸다.(10월 4일 발송)

가장 먼저 박찬별 작가의 그림이 도착했다. 검붉은색 배경 가운데 흰색 구심점을 중심으로 많은 선이 회전하며 몰려 있는 추상이었다. 손명희 작가는 1주일쯤 뒤 이 그림에 대한 반응을 내게 보내왔다. 며칠에 걸쳐 이 그림을 감상하며 자신을 되돌아본 흔적이기도 했다.

<탈구된 자아>

#1

시야에 그림이 들어오자, 대강의 사이즈와 질감을 추측해 본다. J의 후각으로 야생장미의 생생함이 표현된 향과 함께, 보들레르의 <악의 꽃>이 떠오른다. 책장 구석에서 시집을 꺼내 들고 10여 년 전쯤.. 표시된 '부분과 부분' 사이를 다르게 표시해본다. 이 시각, 작게 비어있는 공간을 향해 악의 꽃이 떨어진다. (2:25am)

Aug 14

#2

C의 그림에서 분절된 곡선과 색과 그럼에도 하나의 구심점으로 좁혀지는 이미지를 머리와 가슴에 새겼다. 몸을 풀지 않고 피부 아래에 거주하는 오래된 세포들의 움직임을 따라 이미지를 반추해보았다. 그러다 여기에 멈추었는데, 카메라와 함께하려니 이미지는 또 한 번 변형되고 말았다.

Aug 13

#3

타인의 사물을 내 몸과 연결하기:

C의 확대경으로 신체 내부에 축적된 '촘'의 기억을 비추었다. 5년의 공백—훈련하지 않은 몸에서 무엇이 퇴어 오를지 몰라 두려움에 휩싸였다. 뼈와 관절이 근육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이탈을 반복했다. 호흡과 집중을 끌어당겨 원래의 자리를 찾고 또 찾도록 지시했다. 비뚤어진 골반이 무릎과 팔꿈치를 들어 올렸다. 발끝과 손끝에서 관성이 남아 간신히 균형감각을 유지하고 선다. 카메라가 함께 하자, (신체의, 감정의, 공간의, 시간의, 힘의) 각은 틀어졌다.

Aug 15

손명희 작가는 공동 창작 워크숍 동안 타인을 통해 자아를 새롭게 다시 인식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건 일종의 회복의 과정처럼 보였는데, 회귀로서의 회복이라기보다는 다시 생성됨으로써의 회복에 가깝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러한 회복은 자신의 말하기 방식을 고민하는 것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가 <[보기]의 태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전시장에 내어 놓은 편지는 예상치 못한 형태였다. C에게 보내는 편지, H에게

보내는 편지, J에게 보내는 편지는 3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져 나란히 놓여 있었다. 어두운 밤 숲 속에서 카메라를 든 이가 걸어간다. 흔들리는 카메라는 무성한 덤불을 찍는다. 화면 아래 자막에는 비어있는 혹은 무언가를 가린 □□□□만이 반복된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세 개의 서로 다른 움직임, 저마다의 움직임의 방식이다. 움직임의 규칙에 따라 이미지와 소리가 다르게 조작된다. 나는 언젠가 이에 대한 답장을 보내야 할 것이다. 어떻게 나의 쓰기는 뒤이어질 수 있을까? 여하간 분명한 것은 나는 내게 편지를 보내 온 이들이 기대하는 시간을 배반해야만 한다는 것일 테다.

공동 창작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전시에서 박찬별 작가는 함께 했던 지난 시간 동안 그가 인상 깊게 기억하는 풍경들을 그려 왔다. 한밤중의 한강의 풍경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지만 다채로운 색이 점 찍힌 어두움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 그림 주위에 눈동자를 그린 작은 캔버스들을 갖다 놨다. 박찬별 작가는 자신이 본 것을 그리고 자신의 보기에 대해서 늘 되돌아본다. 윤지영 작가는 자신과는 다른 미술을 하는 박찬별 작가를 보고 그간 자신이 해보지 않은, 눈앞에 주어진 세상에 대한 보다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반응으로서의 미술을 시도했다. 우리에게 다다른 그 그림 엽서다. 그리고 향의 묘사를 듣고 그것을 충실히 구현하려 했던 중간 워크숍때와는 달리,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해석으로 각자의 새로운 향을 만들어 왔다. 거기에는 그 향이 누구의 것인지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 되려 처음보다 아득히 멀어졌지만 오히려 정직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만들어 온 작고 검은 공들은 따뜻한 열을 받으면 색이 변하며 숨어있던 메시지가 드러났는데, 그 중 하나에 적힌 것은 “기다리고 있었어요”라는 문구였고 다른 하나에는 달팽이와 편지봉투 그림이 그려 있었다. 느린 편지(snail mail).

기다림은 박찬별, 윤지영, 손명희 작가의 함께하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일 것이다. 그들은 시간을 들여 이해하고 소화시켜야 할 메시지를 서로에게 보냈고 또 받았다. 이 과정은 아주 긴 시간에 걸쳐 있는 것이기에 당장은 실패와 아쉬움으로 다가올지 모른다. 하지만 그 시간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실패라기보다는 우리를 늘 대화의 과정 속에 두는 일이 될 것이다.

손명희 작가는 윤지영 작가가 보낸 그림 엽서에 대해 〈가공되지 않은 목소리〉라는 원고를 썼고 그 중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를 알지 못하고, 어떤 종류의 ‘바람’만이 남아 있다. 황금빛으로 물드는 밝은 태양. 다시 희망하는 것. 미래를 살릴 □□□. 슬며시 번지고 비워져 있는 한숨들 사이로, 생기 가득한 초록이. 뿌리가 단단한 푸르름으로-더없이 차오르면 좋겠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두개의 소리]가 완전히 만나지 않고도 어우러지는. 즐거운 부딪힘과 소여를 경험하면 좋겠다.”

워크숍은 겨울이 오기 전 끝이 났고 이제 서로가 만나야 하는 구실은 딱히 없다. 이 편지의 교환은 끝난 것일까? 아니면 여전히 하는 중일까? 쓰기를 멈추지 않는 한 그것은 여전히 과정 중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인 수신자가 설정되어 보내기 보다는 다른 어딘가에서 흔적으로서 발견될 가능성이 더 크다. 공동 창작 워크숍이라는 일시적이고 인위적인 구심점이 사라지고 대화에 불필요한 행정적 서류와 성과를 필요로 하는 제도를 벗어난 이후라면, 어쩌면 정말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속도를 찾게 될지도 모르겠다.

박찬별, 손명희, 윤지영
작품 소개

박찬별, 손명희, 윤지영,
〈서신-교환 프로젝트〉,
가변 설치, 2020.
98–99p

박찬별
〈감바리싸가 전한 소통들〉,
종이에 아크릴과 색연필, 14×18cm, 2020.
106p
〈멤버들의 동공이 보여준 새롭고도 신기한 화면〉,
캔버스에 색연필, 2020.
102–103p

손명희
〈탈구된 자아〉,
단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1분 20초, 2020.
107p 위
〈가공되지 않은 목소리〉,
복합 매체, 2020 *목소리: 류세일
100p
〈Footage〉,
단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2분 23초, 2020.
107p 아래
〈[보기]의 태도들〉,
2020, 3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3분, 2020.
108–109p

윤지영
〈당신은 불을 절까요?〉,
각종 향, 소이 왁스, 초심지, 2020.
100–101p
〈박찬별〉, 〈손명희〉, 〈이한범〉,
각종 향, 코르크 마개, 약 150ml 유리병, 2020.
104p
〈ΕΠΕΣΤΡΕΦΕ〉,
연필, 파스텔, 색연필, 스캔 후 컬러프린트,
15×21cm, 2020.
105p

신체의 한계로 인한 감각의 상실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다시 각자의 태도와 작품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에 대해 나누는 박찬별, 손명희 그리고 윤지영 작가의 대화는 흥미롭다. 이들은 이번 워크숍 기간 동안 각자 자신에게 익숙한 표현 방식으로 작은 워크숍을 진행했다.

현대무용가 손명희는 시선에 따라 반응하는 몸과 낯선 환경에서의 신체를 감각해보기, 주로 조각을 다루는 윤지영은 신체나 사물의 표면을 본뜨고 거기에 각자의 향을 덧입히는 캐스팅 워크숍,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박찬별은 자신의 시각적 감각을 나누며 함께 풍경을 바라보고 재현해 보는 시간 등을 마련했다. 일련의 워크숍을 바탕으로 이들은 다시 서로에게 편지를 쓰듯 이미지와 영상, 오브제 등을 교환했다. 이 대화의 부산물은 지난 시간 서로의 감각을 연결하는 하나의 결과물로 재조합되었다. 한편, 이런 서신의 교환 사이 일어난 교감 혹은 침묵은 손명희의 퍼포먼스이자 영상작품인 〈[보기]의 태도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 작품은 〈서신-교환 프로젝트〉에서는 부치지 않은 한 통의 편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어두운 밤의 풍경과 소리를 담은 화면 속 대상들은 미리 계획된 안무를 따라 움직이는 수행자의 동선에 따라 반응한다. 3개의 영상 속 서로 엇갈리는 이미지와 사운드는 화면 바깥에 또 다른 리듬과 운동성을 만들어 낸다.











작품 소개



박찬별 손명희 윤지영



- ㅁㅁㅁㅁㅁ ㅁㅁㅁ ㅁㅁ
- ㅁㅁㅁ ㅁ ㅁ



ㅁㅁ ㅁㅁ, ㅁㅁㅁㅁ ㅁ ㅁ ㅁㅁㅁ ㅁㅁ!



【 ㅁㅁㅁ ㅁㅁㅁ ㅁㅁㅁ ㅁ ㅁ ㅁㅁㅁㅁ】

그냥 도전이었어요. 밤 산책, 야간 산행도 기억에 남아요. 새벽에 한강 간 것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원래 밤에 걷는 걸 좋아하고 밤공기를 좋아해요, 산행을 좋아하진 않지만 밤을 좋아하거든요. 혼자가 아니어서 덜 무서웠고, 무언가 말할 수 없는 흥미진진한 느낌이었어요. 모두가 같이 끈끈해진 느낌. 어두우니까 함께 더 불어서 같이 부축하고, 말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기도 하고, 서로의 반응을 보면서 재미있어 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진행한 워크숍에 대해 말하자면) 불편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물체, 꼭 안경은 아니더라도 쓰고 볼 수 있는, 불편한 시야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물건을 직접 만들어 보고, 만든 것을 가지고 쓰고 걸으면서 불편함을 느껴보기도 하고, 느꼈던 것을 그려보기도 하면서 서로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감정도 공유하는 시간이었어요. 지역 작가님이 자신이 만든 안경 같은 물체를 쓰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시면서 한 쪽은 빛이 너무 강해서 노란색, 주황색으로 보이고, 어두운 풍경 쪽으로 갔을 때는 나무들이 많아서 초록빛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을 때 공감이 됐어요. 제가 인식하고 있던 세상도 그런 느낌이어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작가 인터뷰에서 발췌

타인을 통해 [반사되는 자아]에 관한 이야기.

두려움, 공포 그리고 죽음에 관한 단상들 # 야간산행 # 자아를 보는 방식 # 거리에 관하여
안무라고 주장하는 것

이 작업에서 신체성의 의미는 조금 다르게 해석됩니다. 움직이는 신체는 화면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행위 주체만 있을 뿐입니다. 각각 3분 길이의 영상에서 이 행위 주체(카메라맨)의 움직임은 미리 안무됩니다. 움직이는 사물들과 풍경 역시, 즉흥적인 몇 가지 순간들을 빠르게 포획하는 방식으로 안무적 요소를 사용합니다. 영상의 자막은 의미를 제거하고, 형태만 남겨둡니다. 이 작업은 실제 수신자에게 쓰인 한 통의 편지를 기반으로 발췌-삽입됩니다 (하지만 이 원본 편지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문자 언어의 의미 작용과 결합하지 않고, 움직이는 이미지를 사이를 유영하며 청각적 사건들과 반응합니다. 이를 사이에서 발생하는 리듬과 운동성을 근거로, 무용이라 주장하려고 합니다.

“공동 창작 워크숍에 참여하며 기대한 바가 있다면?”이라는 질문을 몇 차례 받았지만 늘 제대로 답하지 못했던 것 같다.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나는 ‘기대하지 않고, 기대받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참여했다. 누군가와 팀을 이루어 함께 일할 땐 언제나 각자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있지만, 이 워크숍에서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다. 그저 서로를 알아가는 데에 힘을 쏟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각자를 돌아보거나 서로이 인지하는 순간을 만날 것이고, 일련의 과정에서 서로를 조금씩 더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기대한 것이 있다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전해질 때의 따스함 정도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타의로 결성되어 한 팀이 되었다. 서로에 관해 주어진 정보라고는 지원하면서 공유했던 포트폴리오와 성별 정도. 우리는 각자가 해온 작업을 소개하고 관심사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알아가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거리를 느낀 시작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 작업을 대하는 서로 다른 태도나 나이와 경력에서 생긴 차이가 분명히 존재했다. 그 차이는 부담으로, 걱정으로,

미안함 등으로 표현됐다. 하지만 이 워크숍에서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한가? 서로를 알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닐까. ‘이 사람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할까? 뭘 읽고, 듣고, 볼까?’ 하는 생각이 스칠 때가 내가 누군가의 작업을 보거나 읽고 호감을 느끼게 될 때이다. 관심이 가는 타인에 관해 짐작하거나 상상하는 것은 때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위험할 수도 있지만 매혹적이다. 그 대상이 좋아하는 음악, 영화, 문학 등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거나 혹은 직접 추천 받아 감상하며 그의 취향과 나의 취향을 한데 놓아 보고, 섞어 보기도 하며 내가 그에게 추천할 만한 것을 찾는 시간을 즐거워 한다. 보통은 정보를 얻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이번에는 내 경험을 나누는 것으로 ‘다가가기’를 시도했다. 후각에 문제가 생겼던 사적인 경험을 공유하며 좋아하는 냄새나 향기를 묘사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렇게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팀원의 이름을 붙인 향을 만들었다. 상대를 떠올리며 향을 수집하고 나름으로 섞고, 내 몸에 뿌려보고 하는 일련의 감각적인 과정에서 팀원들과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신체의 일부분, 혹은 오랜 기간 신체의 연장선으로 기능했다는 확대경을 캐스팅해서 다양한 재료로 떠내고, 각자의 이름을 붙인 향을 첨가해 선물로 주는 것이 내가 진행했던 워크숍이다. 다양한 워크숍과 데일리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기도, 더 이해하기도 했다. 좋아하는 이야기, 가사, 대사 등을 필사한 것이나 좋아하는 음악을 공유하기도 했지만, 어쩌면 양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오히려 줄인 것 같기도 하다. <서신-교환 프로젝트>를 통해 못다한 무언가를 전할 수 있을까? 그들은 내가 해야해주길 바라는 것이 있을까? 나는 팀원들과 시간을 보내며 무슨 생각을 했던가? 함께했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여러 다른 생각을 했지만 박찬별 작가가 작업하는 과정을 보며, 미술을 ‘전문적’으로 시작한 이후로는 내 흥미를 끄는 어떤 것, 혹은 상태에 직접적으로 반응한 무언가를 만들어낸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때 가장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박찬별 작가는 더 선명하게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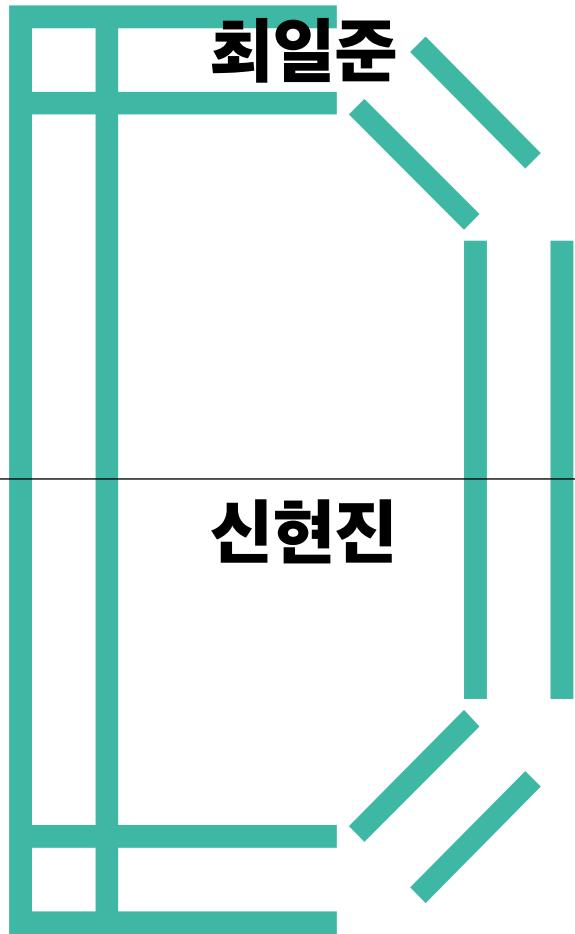
싶은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 그 장면을 눈에 가까이 대고 관찰해 본인만의 방식으로 그려낸다. 세상의 어떤 부분이 그를 그림 그리게 할까? 나는 내가 마주한 어떤 경경이나 물체에 관한 감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과 생각으로 다섯 장의 드로잉을 했고, 팀원들에게 소포로 부쳤다. 그리고 나름의 방식으로 헤아리고 반응하여 만든 무언가를 다시 내게 보내주기를 팀원들에게 요청했고,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팀원들을 알기 전에 그들의 취향을 바탕으로 만들었던 향기가 아닌 내가 그들과 시간을 보내며 느낀 나의 감각 경험이 더 관여한 새로운 향을 만들어 볼 예정이다. 공동 창작 워크숍의 결과 보고전 이후 나는 긴 휴가를 보낼 생각인데, 그때 내가 마주할 낯선 경험을 팀원들에게 전해볼까 생각하고 있다.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 도착한 서신에 그들은 과연 회신할까?

김하경

김한

최일준

신현진



발화점_대화, 관계 그리고 교감의 장치

신현진

기록의 글

어떻게 함께 작업할 것인가?

바쁜 서울 한복판의 샌드위치 체인점 한구석에 작가들과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수다를 좋아했고 진지한 주제들로 대화했다. 죽음, 무아, 인드라망, 기억, 착각, 왜곡, 자기화, 관계 인식, 무의식, 불교 철학, 양자역학 같은 매우 짙고, 어둡고, 축축한 여러 주제가 대화 속에서 무르익어갔다. 그 속에서 밝고 강한 공명이 이뤄지고 있었다.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아도 상대방의 이야기와 자신의 이야기에 연결 고리를 이어가며, 자연스럽게 “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작년에 이 공동 창작 워크숍에 참여했을 때에는 작가님들과 만나면 정말 많은 수다를 나누며 놀았어요. 이야기만 몇 시간 동안 계속할 정도였죠. 나중에 작업을 구상해야 할 시간이 왔을 때, 모두 서로의 작업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서로의 작업의 구상이 어떻게 조합되고, 구체화되어야 할지가 매우 수월히 진행되던 게 기억에 남아요.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면서 작업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그게 저에겐 진정성이 더 느껴지는 협업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김하경, 김환, 최일준 작가 사이의 발화점은 대화였다. 모두 시각화되지 않은 존재와 생각들을 시각화하는데 관심이 있었고, 협업을 잘 해내는 것에 앞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료가 되길 원했다. 서로를 이해하는 가운데 그 관계를 기반으로 작업이 자라나길 바랐다. 김하경 작가에게는 이번 워크숍이 협업이라는 생소한 작업 방식을 시도하는 기회였다. 김환과 최일준 작가는 작년에 이어 올해 공동 창작 워크숍에 다시 참여하게 되었는데, 작년의 첫 번째 참여에서 이들은 협업에 대한 결과물 구상의 촉매제는 함께 쌓는 시간과 서로의 작업에

대한 이해 속에서 작동되었음을 경험했다고 했다. 두 작가 모두 협업에 대해 좋은 경험을 하였기에 협업에 기반한 활동에 긍정적이었다. 그래서인지 모두 서로의 작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나아갈 앞으로의 과정을 모두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셋의 모임 안에서 ‘협업’이란 것을 어떻게 시도할 것인지에 관한 대화가 오갔다.

협업의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각자 작업을 하고 이를 융합해보는 여러 프로토타입을 시도해보기로 하였다. 시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소통하는 작가들은 서로의 작업에 대한 시각적 인식을 배제하고, 언어로만 표현된 작업 설명만을 읽고 서로의 작업에 반응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무엇을 알아내고자 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상대방의 작업에 대한 이해, 감정 이입, 반응과 해석을 기반으로 장치를 통해 서로가 소통하고자 하는 것을 감각해 나아가는 실험을 시작하기로 했다.



먼지들은 딱딱하고 번들번들하다. 청록색 점, 검은 점과 하얀 점이 옅은 회색 바탕으로 박혀 있다. 박제된 먼지들인가, 자유로운 먼지들인가. 자유롭게 퍼지기도 하고, 한곳에 고정되어 있기도 하다. 왼쪽에는 조금 크고 몽실몽실한 빛에 청록, 검은,

하얀 점들이 그 위에 모여있는 듯하기도 하고, 오른쪽 아래에도 또 다른 몽실몽실한 하얀 것이 자라나고 있다.



거대한 폭포처럼 힘있게 하얀 물결이 내리는 듯한 표면이 쩍쩍 갈라져 있다. 갈라진 가늘고 굵은 선들은 산과 산맥처럼 서로에게 이어져 지형도를 만들고 있다. 하얀 표면은 액체 같지만 고체이고, 마름과 함께 젖은 부드러움도 있다.



날카롭다. 딱딱하다, 방패 같기도 하고 무기 같기도 하고. 잘린 철 조각들의 모임 같지만, 여러 철 오브제들이 자신의 모습 그대로 모여 합쳐진 모습이다. 모인 오브제는 길이를 측량하는 도구인데 길이도 다르고, 길이를 재는 방식이 다르다. 이 모든

도구가 모아주는 것은 동그란 원이다.

나는 먼지의 모습들을 보았고, 먼지들이 발생하는 원산지를 보았고, 그리고 먼지들 위에 존재하는 강인한 신 같은 존재를 보았다.

과정_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서로의 상상의 간극을 드러내고 좁힐 수 있을까?

장애라는 주제는 사실상 이들의 대화 속에 존재하지 않았다. 장애와 비장애의 이분법을 중심으로 한 패러다임에 대한 불편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김하경, 김환, 최일준 작가는 창작과 사고와 관점에서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주목하였다. 다른 존재들이기에 우리 사이에는 사이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서로 간의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간극이 있음을 설정하고,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먼지', '배제된 시각과 기록자' 그리고 '비대면적 교감'이란 장치를 통해 이러한 간극을 좁혀보는 시도를 해보았다.

먼지

'먼지'는 철, 도자, 회화 같은 물질적인 매체를 다루는 세 명의 작가의 간극을 드러내고 좁히고 채워줄 장치로 설정됐다. 세 작가는 모두 물질적인 재료로 작업을 해왔다. 작가들은 각자가 써오던 물질적인 소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견과, 기존에 사용하던 재료를 다르게 사용하거나 상대방의 재료에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방식의 작업을 시도해보자는 의견을 냈다. 그리고 서로의 작업이 섞이며 새로운 무언가가 산출되는 가능하다면 또한 시도해 보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로의 여러 의견의 교차점에 있는 물질은 먼지였다. 먼지는 죽음, 무아, 인드라망 등 작가들의 공통된 관심사를 담을 수 있는

유효한 물질이라고 생각했다. 먼지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나'이기도 한 존재, 보이지 않으면서도 보이는 존재, 모이면 더 큰 먼지가 되고 흩어지면 잘 안 보일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한 먼지에 대한 서로의 관점과 상상을 교류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감각과 표현을 맞대어보고 뒤섞이는 먼지의 세계를 상상해보고자 했다.

'배제된 시각'과 '기록자'

시각을 배제하여 교류하는 방식은 익숙한 시각적인 언어를 통한 소통과 교류를 벗어나 새로운 감각의 영역에서 서로의 작업과 닳아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설정하게 되었다. 먼지라는 주제에서 시작하여 각자가 해석한 먼지를 작업으로 표현하고, '기록자'라는 매개자를 통해 텍스트화된 작업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각 작가는 텍스트화된 글을 읽고 상상된 이미지를 창작하여 또다시 기록자에게 공유했고, 기록자는 새로이 해석된 작업을 또다시 텍스트화하여 작가 그룹과 공유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나는 작가들의 요청으로 작업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록자 역할을 맡았다. 작업의 시각적 형태와 요소에 대한 기록과, 더 나아가 작업에 대한 기록자의 '해석'은 작가들의 작업과 교환되고 교감하는 과정에 합류되었다. 기록자는 해석에 기반한 단문의 픽션 형태의 글쓰기를 통해 작가들의 서로의 작업에 대한 "교감/감각하기" 교류에 참여하였다. 그렇게 세 작가와 기록자는 '먼지'라는 주제로 각자의 상상과 해석을 교환했다.

왜곡과 착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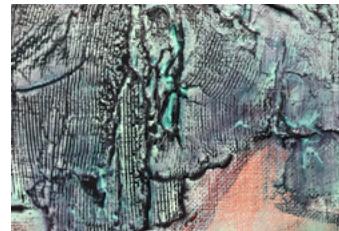
'어쩌면 우리 모두가 끝없는 착각 속에서 다양한 왜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대화를 나눴다. 실제와 현실이 정의될

수 없는 영역이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왜곡과 착각이란 행위를 당연시하고 그것을 드러내어 실재와 왜곡 사이를 공존과 상생의 행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실재와 왜곡 사이의 간극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이어보는 시도를 해보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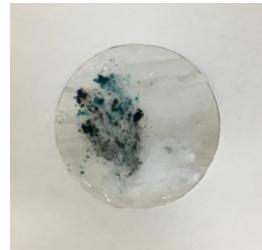
간극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각자의 형식대로 각자의 표현을 생산하는 것이었다면, 그 좁히는 방식이 중요한 것은 상상의 간극의 존재를 인지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자유로이 연결을 느끼는 지점을 찾아가 보고자 했던 것이다. 목표는 그 상상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그 간극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연결 지점을 탐구하는 상생 구조가 목표일 수 있겠다. 그래서 간극과 공존하며 그 사이의 공간을 채워줄 공명을 이루어 나아가길 기대했다.



어느 날 꿈에서 나는 환상을 보았다. 처음은 매우 기하학적인 형광의 산에 동그란 나를 보았다. 하늘은 산과 달리 오묘한 보랏빛에 하얗게 엷은 안개가 덤혀있었고, 안개의 뒤에는 파랗고 빨간 하늘이 역동적으로 섞이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내가 서 있었던 산 또한 여러 흔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곳은 할퀸 듯, 어느 곳은 굽힌듯한 상처들이 있었고, 전체적인 내면의 표면은 오랫동안 문질러온 듯 부드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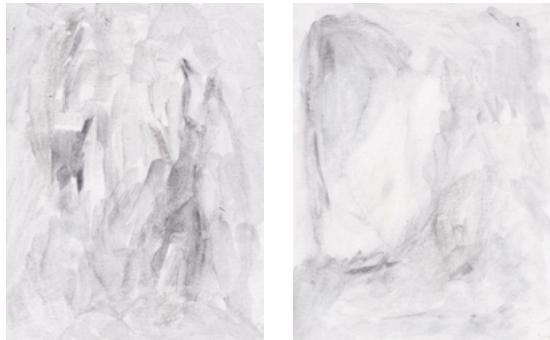
환상의 그곳을 좀 더 둘러보려고 하자 어느새 나는 새로운 다른 곳에 와있었다. 공간인지 생명체인지 알 수 없었던 이곳에서 나는 순식간에 감각이 확장되듯 여러 촉감을 한번에 느꼈다. 우둘투둘한 점들의 표면과 물결무늬로 흘러가는듯한 촉감과, 울퉁불퉁한 표면에 이것이 접어들어 가는 굴곡들까지, 상처인지, 흉터인지, 주름인지, 딱지인지 생물체와 물체 사이를 오가는 듯한 공간이었다. 오감을 강렬히 발동시킨 공간의 촉감과 텍스쳐와 생명력이 나를 잠에서 깨웠다. 그리고 나는 이곳을 찾아 떠나기로 했다.



좀 더 들여다보기로 했다. 창문 속을 들여다보니. 생물체가 보였다. 생물체 또한 아름답다. 기체와 기포, 파편들로 이루어진 듯 뿐어나온 기체와 파편들로 형성된 생명체이다. 몸체는 청록의 피부에 검고 회색의 여러 공기체들이 몸을 만들었고, 몸체를 감싸는 흰 기체는 그들의 옷 같았다. 공간의 내부는 회색 벽으로 둘러싸인 듯하다.



나는 낯선 땅을 탐험하다, 우연히 내 망원경 속으로 무엇을 발견했다. 하얀 숲에 하나의 건축물이었다. 눈이 쌓인 나뭇가지 사이로 짙은 남색의 구조물이 보인다. 꽤 기하학적으로 지어진 이 집은 신전이다. 보일 듯 말듯 어딘가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이곳에 대해 더 발견해보고자 먼 길을 걸어 이곳에 다다랐다. 사방은 회색의 벽들만 계속 마주했다. 낙석으로 깎인 듯 날카롭고 거칠다. 거친 몸부림의 흔적같은 검고 회색의 거친 표면이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멀리서 본 그곳을 뭇 찾을 것 같아 포기할 때쯤에 거칠었던 공간은 점점 존재하는 듯 안 하는 듯 비 오는 날 어두운 숲속의 안개처럼 아주 열고 축축하고 음울한 기체 덩어리로 변하였다.



축축한 기체 덩어리 속에서 계속 걸어가자 막다른 곳에 다다랐다. 열은 회색 기체에 초록 기체와 조금의 검은 기체들을 보고,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망원경을 통해 보았던 생명체라는 확신이 들었고, 지금 내가 찾던 그곳에 다다랐음을 직감하였다. 그곳과 마주한 순간 나와 대화를 하듯, 그 개체들은 뭉게뭉개 움직이더니 기체가 사라지자 그 뒤로 거대한 터널이 드러났다. 청록과 검고 회색이 섞인 어두운 동굴에 청록은 어두운 동굴 속에 열은 빛을 발하였고 동굴의 안에는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무한한 터널이 보였다. 그리고 나는 그 무한한 터널을 향해 걸어갔다.

맞닿은 실제

작가와 기록자 모두 이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와 마주했다. 먼저 자신의 익숙한 창작의 패턴에서 벗어난 제작을 시도해야 했다. 워크숍의 성격과 사용하는 매체의 성격상 제작 작업에 필요한 시간과 속도가 매우 달랐다. 작가들은 자신의 매체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아예 다른 매체를 선택하여 작업을 시도하였다. 김하경 작가는 도자기 표면의 흘러내리거나 갈라지는 형태의 다양한 유약을 사용하는 것을 시도했다. 회화

작업을 주로 하는 김환 작가는 사진을 이용해보기도 했다. 최일준 작가는 구조물을 만들기보다는 발견된 오브제(found object)를 조합하거나 철 가루를 물감처럼 사용한 회화 작업을 시도하였다.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작업해야 했다. 최일준 작가의 경우 매우 폭넓은 리서치를 통해 많은 데이터를 구축한 뒤 자신의 작업을 구체화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상대방의 작업에 대한 짧은 해석인 아주 작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 김환 작가는 비대면 협업 방식으로 인해 실제 매체적인 교류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아쉬움을 표했다. 작업을 함께 하는 주체와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작업을 해나가는 것을 지향하는데, 이러한 기회 없이 비대면으로 작업에 대한 소통이 없이, 상상으로만 진행되는 개인적인 작업 과정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했다.

네 명의 교류 주체, 즉 세 작가와 기록자는 서로의 해석을 받아들여야 했다. 어떠한 작업을 주체적으로 구상하기보다는 누군가의 해석을 해석해야 했다. 텍스트화된 작업을 다시 시각화하거나, 시각화된 언어를 텍스트화하는 과정에서 표현하고자 한 것을 감지해야 했다. 반면에 작가는 자신의 작업을 구상해야한다는 압박감은 덜하였다. 다른 이의 세계에서 나는 무엇을 감각하는가, 무엇이 교감되는가 질문을 던지고 그 안에서 자유로이 경험하는 것을 답례로 표현하는 과정이었다. 정처 없이 떠도는 기분도 들었지만, 그 안에서 또 모종의 해석을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 서로가 서로의 실마리를 이어갔다.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는 모른다 해도 서로를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인정 어린 제스처와 같았다.



터널 속 끝에 거의 다다랐다. 동굴의 표면은 여러 색을 머금고 있었다. 매우 습한 동굴은 열고 어두운 붉음, 청록과 그리고 검고 누런 표면이 덮고 있었다. 출구 밖은 무엇이 있는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출구는 묵직한 흰 물/기체를 머금고 있었다. 꽤 습하고 촉촉했던 동굴의 바닥에는 흰 기체가 비쳐 보였다. 그리고 출구에서부터는 매우 미세하지만 소리가 들려왔다. 언제는 짧지만 길게, 어떨 때는 반복적인 스타카토로, 어쩔 때는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긴 굉음, 아니면 지나가듯 흐휙 내는 정말 미세하고 작은 소리가 들렸다.



흰 물체의 출구를 통과하였다. 통과하는 즉시 나는 뿐만 세계와 마주하였다. 파란 세계에 짙은 약간 퇴색된 분홍, 청록, 초록,

검은 회색의 여러 덩어리가 떠다니고 있었다. 어느 부분들은 고정돼 있듯 멈춰 있는 덩어리 같았고, 어떤 덩어리들은 어디로 가는 듯 역동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었고, 여러 색깔의 어떤 덩어리들이 서로와 서로에게 뒤엉켜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듯했다.



그렇게 뭉개뭉개 움직이던 물체들이 순간 모든 것이 뚜렷해졌다. 늦여름에 거칠어진 짙은 풀이 가득한 들판이 앞에 나타났고, 왼쪽에서 환상에서 본듯한 보라색 산이, 그리고 묵직한 흰 구름 한줄기가 자주색 하늘과, 산과 들판의 지평선 사이를 가로질러 가고 있는 풍경. 산과 들판은 허공에 떠 있었다. 무성히 자란 들판 아래 얹은 구름 위에 있듯 들판 아래는 기체가 가득한 공간밖에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맞닿으려는 실체는 무엇일까?

작가들은 보통 개인의 작업 세계에 빠져 작업을 한다. 그러나 보면 일상에서 타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게 된다. 협업을 위해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고 해도, 감각과 예술적 표현 범위 안에서 어디까지 서로를 고려하고, 배려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도는 다름에 대한 보편성의 기준을 제거해보고자 시도한 실험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의 작업이 있었지만 그들의 작업은 없었다. 이야기도 그 이미지들도 불분명해졌다가 선명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추측만 남긴다. 독자에게 그림을 들여다보게 하고 또 각자의 머릿속에 자신만의 이미지를 구현하게 한다. 이러한 글과 이미지의 향연 속에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가 있기도 하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우리도 아닌 무엇이 만들어졌다. 어떻게 보면 나 안에 나를 구현한 것이고, 나 안에 너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렇게 예기치 못한 발견과 해프닝들 속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흐름을 따라 또다시 모두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소리를 더하게 한다.

워크숍을 함께하면서 계속 나왔던 질문은 “그래서 이러한 행위 속에서 우리가 맞닿을 실체는 무엇일까? 서로였을까? 서로가 맞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했을까? 아니면 이미 맞닿은 것인가?”였다. 이 질문들을 되새김질하며 그 답을 찾고자 했다.

상상치 못한 반전과 공명의 지점들과 맞닿게 되면서 왜곡과 착각의 한끌 차이와 그 다양성을 존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인지한다면, 그 안에서 나는 이전보다 조금은 더 알게 된 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존재들은 나에게 이로운, 나를 있게 하는 존재가 되면서 인드라망◆이 형성된다.

나에게서 우리를 찾고 우리에서 나를 찾아서…

우리는 모두 어쩌면 기본적으로 각자가 만든 여러 왜곡과 착각으로 만들어진 세계에 살아간다. 우리는 우리의 다름을 좁혀 나가는 시도를 하길 원했다. 협업하기 위해서 서로가

◆ 인드라망은 끊임없이 서로 연결되어 온 세상으로 퍼지는 법의 세계를 뜻한다.

서로에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었으면 했다. 실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보다, 왜곡과 착각이 난무하는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계로 느끼며 더 들여다보는 것이 어떨까. 그 다양한 해석, 표현, 관점들이 존재하는 생태계가 모두의 터가 되어 이를 바탕으로 자신, 그리고 타인에 대한 더 많은 생각, 상상과 해석을 가능케 하는 환경이 존재하도록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지점일지도 모른다.

꿈에서 깨어났다.

떠나니는 흰 물/기체들은 증발한 듯 사라지고 작은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분명하게 존재하던 감각들이었고 때론 익숙하지만 설명하지 않았던 기억들이 이미지가 되었다. 어쩌면 돌고 돌아 또다시 제자리로 온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온 이곳은 처음과 다르다.

김하경, 김환, 최일준 작품 소개

김하경,
〈파란 세계와 덩어리들〉,
도자, 45×30×15cm, 2020.
〈자주색 하늘과 푸른 들판〉,
도자, 60×45×17cm, 2020.
〈짙은 초록 사다리꼴〉,
도자, 30×45×14cm, 2020.

134–135p

김환,
〈하얀 출구〉, 캔버스 위 아크릴,
80.3×116.8cm, 2020.
136–137p

최일준,
〈출구는 묵직한 흰 물/기체를 머금고
있었다〉, 스테인리스 스틸에 플라즈마
드로잉, 산화 알루미늄 분말, 117×94cm,
2020.
138–139p

김하경, 김환, 최일준,
〈김하경, 김환, 신현진, 최일준의 소통 과정〉,
슬라이드 영상, 6분 34초, 2020.
140–141p

김하경, 김환, 최일준의 작품은 만지면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듯한 색의 촉감과 형태를 그대로 포착한 듯 보인다. 광물 원료의 천연 색을 도예 작업에 접목하여 다양한 실험을 진행 중인 김하경, 역시 흡사한 금속 산화물을 통해 조각적 방식으로 평면을 구성하는 최일준, 그리고 최근 재료의 물성에 주목하며 구상에서 추상적 표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김환 작가는 서로 닮은 듯 다른 재료와 표현 기법을 지녔다.

이들은 이 워크숍을 통해 서로에게 친근한 시각적 이미지를 배제하고 새로운 방식의 교류를 시도했다. 이들의 교류 방식은 낯선 대상과 새로운 교감을 일으키기 위한 시도이자 비대면이 일반화된 현재 상황에 대한 반응이기도 했다. 이 대화는 사진이나 드로잉을 서로 교환하되, 그 이미지 자체를 직접 전달하기보다는 이를 보고 해석한 글을 통해 그 너머의 이미지를 다시 상상해 보는 것이었다. 작가들이 주고 받는 시각적 자료를 새로운 이야기로 재해석하는 역할은 작가들의 대화를 관찰하고 매개한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의 신현진이 맡았다. 이 과정에서 생산된 이미지와 글은 〈김하경, 김환, 신현진, 최일준의 소통 과정〉(2020)에 담겨 있다. 이 과정과 작품들은 각자의 작업에서 일으키고자 하는 새로운 실험의 기반이 되며 그간 이룬 교감의 흔적을 기록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작품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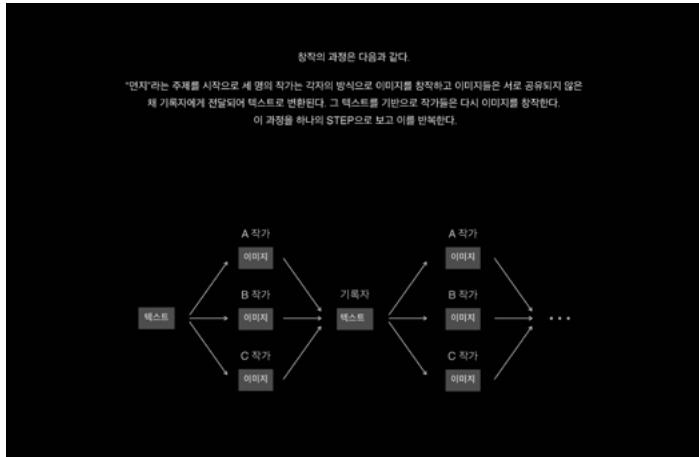
김하경 김환 최일준



작품 소개



김하경 김환 최일준



김하경

시각 정보를 배제한 채 문자 정보만을 공유하여 협업한 새로운 방식의 공동 창작물이다. 서로의 이미지가 문자화 되고 다시 이미지로 치환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상상에 기반한 이미지들로 재현, 혹은 재해석 되며 축적된 모습이다. 작품 안에서 유약은 제조 시 재료의 비율과 소성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색과 텍스처로 발현되고 이는 간접적 상호작용을 통해 쌓인 이야기들을 표현한다.

김환

개인 경험의 프리즘으로 대상화시키는 표현주의적 과정과 타인의 기억과 시각을 직접적으로 해석하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할 때 교차한 지점과 공동 창작의 대화에서 나온 논제들이 개인으로 스며들었을 때, 결국 작가의 조형언어로 변환되는 과정이라 귀결될 수 있지만 이 일련의 간극의 체험은 최초의 시각과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완전한 체험의 연속 속에 실재함을 인지함은 프레임을 부수고자 하는 욕망이다.

“출구는 묵직한 흰 물/기체를 머금고 있었다. (중략) 그리고 출구에서부터는 미세하지만 소리가 들려왔다. 언제는 짧지만 길게, 어떨 때는 반복적인 스타카토로, 어쩔 때는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긴 평음, 아니면 지나가듯 휙휙 내는 정말 미세하고 작은 소리들이 들렸다.”

— 작품의 시작이 된 글 중에서

시각 정보를 배제하고 이를 언어로 표현한 일종의 서신을 통해 김하경, 김환 작가와 소통하면서 맞닿으려고 했던 실재는 무엇일까. 왜곡과 착각을 촉진시키는 이 창작의 장에서, 오감을 통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넘어 새로운 감각들을 통해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갔다. 그 속에서 조금씩 더듬어가며 서로의 작품 세계에 맞닿아보려고 했다. 흥미로운 것은 왜곡과 착각이 난무하는 그 속에서 자의적인 상상과 해석이 중첩될수록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던 자신의 사고방식을 발견하게 된다는 점이었다. 나는 타인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도 다 알지 못한다. 이 창작의 과정에서 오감으로는 느낄 수 없는 두 작가의 세계관과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던 나의 세계관을 만난 듯하다. 이러한 발견 또한 결국 또 다른 왜곡이겠지만, 어쩌면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던 실재이지 않을까.

기획 전시



기획 전시

스테레오 비전



기획 전시

스테레오 비전



기획 전시

스테레오 비전



기획 전시

스테레오 비전







기획 전시

스테레오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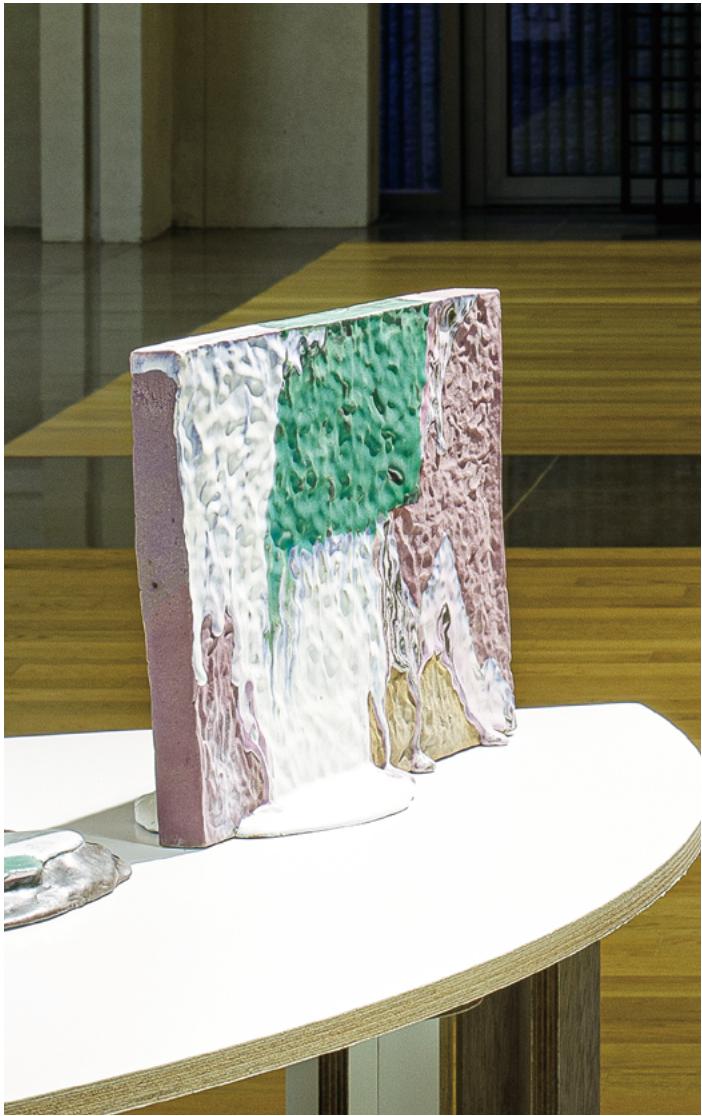
기획 전시

스테레오 비전



기획 전시

스테레오 비전



기획 후기

《스테레오 비전》은 2020년 11월 4일 끝났다. 그리고 지금은 12월이다. 워크숍을 마치고 지난 과정들을 살피며 회고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흔치 않다. 보통 그 끝은 비평이나 감상의 뜻으로 남겨두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지난 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은 장애·비장애 예술인 사이의 '공동 창작'은 그 결과물 만큼이나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이다. 이것은 이와 비슷한 상황을 앞둔 이들, 아니 무엇보다 반복되는 과정 중에도 여전히 스스로를 탓하게 될 미래의 자신을 위해 남겨두는 말이다.

《스테레오 비전》은 얼마만큼의 시간을 필요로 했을까? 참여 작가 최종 선정과 기획전시를 위한 공간 선택 그리고 공식적인 전체 워크숍과 중간공유회 등을 제외하고 2020년 6월 이후부터 전시가 열린 10월 16일까지 큐레이터와 참여 작가 사이의 팀별/개인 미팅은 총 28회에 달했다(이는 전시 제작을 위한 협업자들 간의 미팅 역시 제외한 것이다). 여기에 각 팀별로 진행한 공동 창작 워크숍의 횟수를 합치면 총 만남의 횟수는 30회를 훨씬 웃돌 것이다. 약 5개월의 준비 기간 중 적어도 일주일에 2회 이상은 워크숍의 참여 예술인들과 직접 만나 그 과정을 함께 한 것이다.

여기서 이런 숫자를 언급하는 것은 그간의 노력을 복기하려고 함은 아니다. 전시를 위한 준비 기간을 따로 산출해보거나 그런 필요성조차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여기서 이를 언급하는 것은 보통의 기획전시를 위한 작가와의 대화보다 공동 창작 워크숍을 위한 과정의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직접 만남을 자제했음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그 만남의 횟수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예상된다.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멈추지 못했던 것은 구체적인 각 팀별 워크숍을 진행하고 그 과정을 기록해야하는 이 프로젝트의 특수성 때문이었다.

큐레이터의 주제의식을 중심으로 꾸려지는 기획 전시의 경우 주제에 대한 기획자와 예술가 사이의 교감 이후 각 참여 작가들이 개별적으로 가지는 창작 생산이 그 바탕이라면 이번 전시는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방식은 물론, 실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 자체를 '공동'으로 진행해야 했다. 물론, 여기서 결과물을 위한 개별 작품 생산은 각 예술인이 따로 분담해야하는 부분이다.

특히 이번 워크숍과 같이 서로 다른 매체적 특성과 장애·비장애라는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겹쳐진 공동 창작이라면 일반적인 공동 생산의 가치인 효율성과 합리성에 대한 기대와 목표의식은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지점이 내가 이번 워크숍과 기존의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가장 크게 변화해야 했던 점이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처음부터, 모든 참여자가 기존의 창작 습관과 관점에서 벗어나 각자의 시차를 인정하고 새로운 교류방식을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하지만 이런 태도를 지니고 시작한다 하더라도 각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들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할 것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도 분명 서로의 이해가 매끄럽지 못했던 시간들 그리고 긴 침묵의 공백들이 존재한다. 이어지는 메모들은 『스테레오 비전』을 통해 겪은 아주 좁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장애·비장애 예술인 공동 창작'의 준비 기간 중 살펴볼 만한 지점들에 관한 이야기다.

a. 누가 누구의 동료를 결정할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인원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쉽지 않아 기획진과 외부 심사위원을 통해 각 팀의 참여 예술인을 직접 구성했다. 사전에 이를 공지하고, 모두 동의한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적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외부에 의해 선택된 동료라는 의식이 작동하기도 했다. 팀을 구성할 때 객관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감안했지만 이는 그러한 현실적인 조건들보다 결국 참여자 스스로의 선택이 팀의 결속력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인다. 『스테레오 비전』과 같이 사전에 기획된 공동 창작 워크숍일수록 기획단 측에서 참여 예술인의 전체 선발에 관여하더라도 최종 팀 결정은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각 팀 안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서로 대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b. 매개자, 관찰자 그리고 조력자

이번 워크숍에서는 참여 예술인 외에도 각 팀에 공동 창작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역할의 매개자/관찰자를 따로 배치했다. 이는 워크숍의 과정을 진행하는데 매우 적절한 방식이었다고 본다. 공동 창작의 과정을 아카이빙하고 매개하는 이들의 역할이 기획적인 측면이었다면, 각 팀의 조력자는 실질적으로 이들의 창작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이었다. 특히 『스테레오 비전』에서는 각 참여 예술인의 장애의 성격에 따라 미팅에 동행하는 것은 물론, 과정에 필요한 문서 작성 등을 돕는 등, 공동 창작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연결시키는 이들의 도움은 필수적이었다. 이들의 다양한 역할과 참여 방식은 실제 참여 예술인의

구성 만큼이나 공동 창작의 준비 과정에서부터 염두하며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c. 혹시, 이런 질문도 했을까?

서로에게 낯선 상태에서 무언가를 성급히 만들어내려고 하기보다는 각자의 상황과 관점을 관찰해보는 시간은 공동 창작 과정 중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스테레오 비전』은 전체 워크숍 2회를 통해 이런 단계를 시도를 했지만, 이후의 피드백에서는 좀 더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질문과 답변을 나눌 수 있는 교류 방식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은유적이고 유연한 방식도 좋지만, 특히 서로 다른 경험과 방식을 지닌 다양한 배경의 참여자가 함께하는 공동 창작이라면 서로가 지닌 막연한 관념들에 대해 직접 소통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d. '전시 만들기'와 '공동 창작'

『스테레오 비전』은 처음부터 과정 중심과 참여자 간의 워크숍이 주요 개념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와 목표는 결국 '전시 만들기'에 포섭될 위험이 높다. 실제 『스테레오 비전』도 이 두 지점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각 팀은 하나의 공동 작품을 만들기보다는 각자에게 적합한 형식을 통해 각기 다른 개념의 '결과물'을 제작했다. 이 부분은 워크숍의 초기부터, 과정에 방점을 둘지 혹은 일반적인 결과물=작품=전시라는 형태를 고수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한 노선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e. 이후의 장애·비장애 예술인 공동 창작 워크숍

장애·비장애 예술인 공동 창작 워크숍은 각 매체간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장애 예술'에 대한 편견을 예술계 안팎으로 해소하는데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지난해에 이어 사업에 참여하는 작가의 수와 예산의 규모가 커졌는데 이후에는 규모적인 발전 보다는 실제 작가들이 창작하고 교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정 확보를 통해 워크숍 기간 중 참여 예술인들이 서로의 예술적 감각과 관점을 더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만일, 현실적으로 한정된 기간 중에 이뤄져야하는 공동 창작 프로젝트라면 향후 더욱 실험적이고 완성도 있는 공동 창작 결과물을 전개할 수 있는 시작점을 제시하는 연속적인 워크숍이나 포럼의 형태로 진행하되, 이를 영상이나 출판물로 공유하는 방식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세한, 작은,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타인과 나의 세계관,
직접적 vs. 간접적, 왜곡 vs. 실재 (최일준)

‘기대하지 않고, 기대 받고 싶지 않은’ 마음 (윤지영)

진동, 기척, 공기의 흐름에 따라 피부에 닿은 소리. 청각,
시각, 후각, 촉각, 미각으로 바뀌고 감정도 진동으로 느낀다고
한다. (김은설)

영상에 등장하는 인형들보다 그 인형들을 연기하고 움직이는
인형술사 작가들이 사실은 이 인형극의 주인공이다. (이민경)

조각난(혹은 확성과 교차를 위한 조각냄)

스테레오 비전, 프리즘 / 변환, 교차 (김환)

재현, 재해석, 측적, 간접적 상호작용 (김하경)

타인을 통해 [반사되는 자아] (손명희)

내 경험을 나누는 것으로 ‘다가가기’ (윤지영)

신체와 비생명의 만남을 통해 … 스스로 갖고 있는 에너지를
끌어냄으로써 움직이지 않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 확성
(전보경)

움직임의 파동은 또 다른 시각, 청각, 촉각으로 연결되고

뻗어나간다. 평면적인 것이 아닌 상호작용 안에서의 입체적
감각은 어떠한 감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정지혜)

각 참여자의 동등한 힘과 의견, 평등하고 민주적인 구조,
예술 작품으로서의 결과물이라는 여러 요구에 부합하고
싶기도 했다. (조영주)

이야기를 만들고 친구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술을 가르쳐 줄 거라고요. 아직 (예술을) 이해를 못하는
친구에게요. (한승민)

『스테레오 비전』은 참여자들의 '소극적'이고 '조각난'
활동을 재배열하고, 그 사이를 다양한 이음새로 엮고, 이
조각 모음을 최대한 오랫동안 이어가는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들었다.

소극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기준이나 보편에 미치지
못하는 영역 내의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미세하고 작은,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세계관,
직접적인 왜곡과 간접적인 실재,
기대하지 않고, 기대받고 싶지 않은 마음,
진동으로 느끼는 청각, 시각, 후각, 촉각, 미각,
인형들을 뒤에서 연기하고 움직이는 인형술사들…

조각났거나 조각 내는 것은 2차원 영상이 모여 3차원
영상을 만드는 스테레오 비전처럼 확장하고 결합하기 위한
가공이다.

다양한 것들이 어울려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프리즘,
재현되고 재해석, 변환된 것이 교차와 축적되어 상호작용을
하고, 타인을 통해 반사되는 자아, 내 경험을 나누는 것으로
다가가고, 신체와 비생명의 만남을 통해 스스로 갖고 있는
에너지를 끌어냄으로써 움직이지 않는 움직임을 포착하며,
여러가지 움직임의 파동들을 또 다른 시각, 청각, 촉각들로
연결한다.

소극적인 태도와 활동은 협업자의 말과 행동을 더
감각하고, 보조하고, 반영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조각 낸
것이라 생각했다. 나라는 틀 안에서 감각하지 못하는 기운,
경험 그리고 수신할 수 없는 메시지를 위해, 그 틀 밖으로
나를 안내해줄 수 있는 협업자의 감성을 예민하게 보조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소화하고 협업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개입하고, 매개하고, 상상하여 개별
신체의 오감을 넘어서고, 가치관을 되돌아보고 극복하려
노력했던 것 같다.

세 명의 작가로 구성된 네 팀, 그리고 공동워크숍을 통해
협업의 출발선을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매개한 작가들.
참여 작가 각자의 장애의 형태에 따라 대화를 보조해준
전문 조력자 및 가족. 다양한 협업의 과정과 결과물을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하나의 여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디자인, 영상, 전시 설치 팀. 그리고 그 뒤에는
기획 팀과 함께 모든 과정을 보조하고 물리적인 시공간을
제공한 기관이 있다. 이렇듯, 당연할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수행 역할들이 조개지고, 협업의 방식이 구체화됨에 따라
주어진 시공간적 제한 안에서 개별 활동 영역이 팽창하고

수축했다.

전시로써 보여진 공동 창작의 결과물은 팽창과 수축의 과정들이 별자리처럼 자리했다. 전시장 입구 역할을 한 아치형 아카이브 구조물. 그 안에는 협업 과정과 팀원 역할에 대한 작가의 개별 인터뷰, 오로민경,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이 진행한 전체 공동 워크숍, 그리고 각 팀을 포함한 전체 협업 구조를 도형과 선으로 이루어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것이 평면 보드 풍으로 위에 펼쳐졌다. 주관적인 사실을 함축해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이다.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이 정보 전달의 형태는 사실 글과 디자인에 있어 많은 이들의 재해석과 매개를 요했다.

실제 협업의 결과물들은 주로 조각 낸 시간과 역할의 근거들로 이루어졌다. 팀원들이 함께 보냈던 시간의 근거가 흐르는 대로 담백하게 놓여져 있거나(윤지영, 손명희, 박찬별) 리드미컬하게 재배열되어(김하경, 김환, 최일준) 보고 만지는 이들과도 그 시간을 최대한 공유하게끔 하였다. 시간의 누적이 드러나는 매체: 반복적인 수작업이 집약되거나, 퍼포먼스를 담은 영상과 실제 퍼포먼스로서(김은설, 전보경, 정지혜), 그리고 시작부터 끝이 분명한 일련의 내러티브(조영주, 이민경, 한승민) 또한 관객으로부터 적절한 시간을 요했다. 별자리의 별들 사이 거대한 우주가 있는 것처럼, 협업자들이 공유했던 시간의 과정 사이에는 그들이 실제로 만나고 대화하며 고민했던 시공간이 협업자들과 관객의 기억과 상상으로 놓축되거나 증발했다.

결론적으로 공동 창작물을 떠나 하나의 큰 프로젝트로서 역할들을 더 조각 내어 디자인, 영상, 출판물로 편집하고 재해석한 이유는 소극적인 것들을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한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다.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함께 만들어 낸 제한 안에서 가능한 잘게 쪼개고 가능한 한 최선을 다 하는 것은 어쩌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임과 동시에 과분한 행위 일지도 모른다. 수많은 주장과 그것을 기록하는 매체가 쏟아져 나오지만, 진정 귀 기울여야 하는 목소리가 쉽게 묻히는 지금, 참여자들은 길지도 않지만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 했고, 그 시간이 차지하는 용량을 극대화하려고 있으니 말이다.

《스테레오 비전》을 질적으로 되돌아보는 것보다 조금 더 추상적인 수치와 객관적인 물리 반응으로 상상해 보는 것은 '행함' 자체에 의미를 더 두고 있기 때문이다. 움츠러들었던 역할과 책임들이 중첩되어 하나의 구조가 되면, 조금이나마 늘어난 협업의 시간의 흐름을 또 다른 이들이 목격하고 거기에 가담할 수 있지 않을까.

타임라인

2020.5.30

14:00 – 17:00

1차 전체 워크숍

〈낯선 땅, 낯선 언어:

협업자와의 다이얼로그〉

초대 강사: 김도현

장소: 온라인

2020.6.1 – 6.19

팀별 1차 공동 창작 워크숍

2020.6.20

15:00 – 17:00

2차 전체 워크숍

〈하나의 존재를 만나는 여러

갈래의 감각들〉

진행: 오로민경

장소: 잠실창작스튜디오

하늘연

2020.7.10

14:00 – 16:00

3차 전체 워크숍

〈감바리싸의 세계〉

진행: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

장소: 청년예술청 그레이터

하늘연

2020.8.7

14:00 – 16:00

4차 전체 워크숍 (중간 공유회)

장소: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명례방

2020.7.11 – 8.6

팀별 2차 공동 창작 워크숍

2020.8.8 – 8.31

팀별 3차 공동 창작 워크숍

2020.9.1 – 9.30

팀별 4차 공동 창작 워크숍

2020.10.1 – 10.15

팀별 5차 공동 창작 워크숍

2020.10.16 – 11.4

《스테레오 비전》기획 전시

장소: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2020.11.20

결과 공유회

장소: 잠실창작스튜디오

하늘연

작가 소개

김은설은 사람들에게서 발견한 미묘한 심리, 사회적인 현상, 다수와 소수자의 이야기, 불편한 감각을 드로잉과 설치로 표현하고 있다. 《덤불숲》(2019,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풀실놀이》(2019, 룬트갤러리) 등의 개인전을 진행했고 《Over the Rainbow》(2019, KT&G상상마당), 《오픈코드》(2020,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김하경은 도자를 구성하는 원료들을 연구하고 결합 비율과 소성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에 관심을 가진다. 각각의 원료들이 가마에서 화학작용하는 현상을 만물의 상호작용에 비유하며 유동적인 삶의 순환 속에서 찰나의 모습을 흙과 유약으로 표현한다. 흥익대학교 도예유리과와 조소과 학사를 졸업하고 미국 애리조나주립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국내외에서 다수의 개인전과 그룹전에 참여하였고 미국 몬타나 주에 위치한 레드랏지클레이센터에서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2017), 김해 클레이아크 미술관의 국제 레지던시(2018),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 주립대에서 주관한 국제 레지던시(2019), 일본 시가현립 도예 문화의 숲 미술관 국제 레지던시(2019-2020), 서울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2020-2021)로 참여하여 활동했다.

김환은 목원대학교 서양화 대학원을 졸업하고 잠실창작 스튜디오 10-11기 입주 작가로 선정되었다. 《아트랩 대전, 소수자를 바라보는 소수자》(2017, 이웅노미술관 신수장고 M2 프로젝트룸), 《신체의 지각》(2019, 잠실창작스튜디오 하늘연) 등의 개인전을 통해 예술 세계를 펼쳤다. 초기 작업에서는 자신이 바라본 세상과 소속감에 대한 동경, 즉 개인의 시선을 위주로 캔버스 위에 표현하였다면, 최근에는 대상에 대한 인식, 대상과 맺는 관계 등에 집중한다. 그는 타자를 통해 재인식되는 시각과 최초의 시각에 차이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에서 시작하여, 대상(풍경) 속에서 덧입힌 기억, 맺는 관계, '나'를 둘러싼 시각적, 사회적 관계망을 이야기하며 차이점에 대하여 질문한다.

박찬별은 작가로 활동하며 작업의 폭을 넓히고자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 잘 보지 못하는 밝은 빛, 편히 볼 수 있는 조용한 어둠 속의 밤, 포기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은은한 빛의 색들은 기억과 추억으로 통한다. 그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가는 아름다운 행복을 스스로 찾아보길 원한다.

손명희는 안무가이다. 경계를 사이에서 발생되는 안무에 관심이 있다.

윤지영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환경으로 개인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 그 자체와 더 나아지기 위해 취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에 관심이 있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감춰져 드러나지 않는 내부 구조에 주목하기도 한다. 《하나의 사건》(2020, 서울시립미술관), 《우리와 당신들》(2020, 경기도미술관), 《밤이 낮으로 변할 때》(2019, 아트선재센터), 《막간극》(2019, 인사미술공간), 《에이징 월드》(2019, 서울시립미술관), 《생태감각》(2019, 백남준아트센터), 《We Don't Really Die》(2019, 원앤제이갤러리) 등에 참여했다.

이민경은 공연 예술가이자 무용가로서 뉴질랜드와 유럽, 최근 한국에서 작업을 해왔다. 극 속 실시간 실험 및 공연 게임 등의 새로운 공연 형식을 통해 이념의 심미적 기능, 무대를 둘러싼 퍼포먼스 및 관객의 역할과 경험에 관한 다양한 실험작 및 오늘날 예술가로 존재하기 위한 조건과 협업 등에 관한 수행적 프로젝트들을 해왔다. 최근작으로 기후위기를 안무적으로 접근한 《피리부는 사람들》(2019), 협업과 콜렉티브에 관한 《저드슨 드라마 (취소선)》(2020), 공동체와 은거의 경험에 관해 쓴 에세이 「What Community, What Solitude」(2020) 등이 있다.

전보경은 사진, 설치,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술 환경 안에 처한 인간의 존재론적 질문을 탐구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수공인의 습관과 기억을 담은 손의 움직임을 주목하여 결과물로 환원되지 않거나 누락되는 가치와 의미, 그리고 아름다움을 찾는 작업을 하였다. 현재에는 비생명 장치(로봇, 사물 등 인공물)와 인간이 갖고 있는 특징을 교차시킴으로써 기존의 규칙에 틈을 내어 인간-비인간의 새로운 리듬을 통해 감각의 전환의 순간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소곡》(2020, 수립 아트센터), 《우리는 어둠 속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2019, 트레져힐, 대만), 《현자의 돌》(2018, 아트스페이스 휴) 등의 개인전을 비롯해 《모호하지만 빛나는 소우주》(2020, 단원미술관), 《전환상상》(2019, 우란문화재단), 《유휴 공간 프로젝트》(2017,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코가네쵸 바자》(2017, 요코하마, 일본)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금천예술공장, 국립현대미술관 고양 레지던시, Taipei Artist Village(대만), Proyecto 'ace(아르헨티나), 테미 예술창작센터, 인천아트플랫폼 등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정지혜는 프리랜스 퍼포머로 한국과 유럽의 다양한 안무자들과 작업했으며, 여러 분야의 작가들과 안무, 퍼포먼스로 협업했다. 사회적, 개인적인 이슈 안에서 상반되는 개념의 공존 속에서 나타나는 패러독스에 흥미를 가지고 작업과 연결하며, 이를 움직임 중심으로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또 움직임이 만드는 행동의 이유를 분석하여 몸에 축적되면서 발생되는 사회적 파장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안무작으로는 《Open Letter》(2020), 《Positioning Game》(2019), 《Untitled》(2018), 《All about memory》(2018)이 있다. 퍼포머로 참여한 작업에는 《DDR》(2020, 권령은), 《신체풍경》(2020, 김정선x김재리), 《에헤라 노아라》(2020, 남화연), 《습작》(2020, 남화연), 《Postcards from Vietnam》(2020, Raimund Hoghe) 등이 있다.

조영주는 서울, 파리, 베를린을 오가며 프로젝트와 전시기획, 예술 연계 프로그램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미술 작가이다.

그동안 다양한 전시를 통해 퍼포먼스, 설치, 사진, 비디오, 사운드, 무용 등의 작업을 보여왔다. 최근에는 '한국 사회에서의 한국 여성의 삶'을 주제로, 구조 속에서의 부조리함 혹은 불편함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성역할', '여성의 정체성' 또는 '여성의 신체성'이라는 소재로 어린이, 청소년, 중년 여성, 다양한 예술가들과 함께 퍼포머티브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최일준은 내면, 대자연, 아이들, 고적 등에서 느껴지는 근원적인 힘, 자신과 타인, 대중 매체로부터 만들어진 내적 불안과 고통, 오감으로는 감각할 수 없는 왜곡된 실재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느끼고 주목해왔다. 금속 재료와 이를 다루는 전문 기술을 기반으로 작업하며, 특히 플라즈마 아크를 이용한 플라즈마 드로잉과 금속 가루를 안료로 한 메탈 페인팅 기법을 주로 사용한다. 그가 추구하는 표현 목적을 프란시스 베이컨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궁극적으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는 플라즈마 드로잉과 메탈 페인팅을 통해 그가 느낀 보이지 않는 것을 행한다. 그의 작품은 독일 국제실버트리엔날레, 청주 공예비엔날레 등에 선정되었고 독일 하나우 신문에 소개된 바 있다. 서울대학교 금속공예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신당창작아케이드 9-11기 입주 작가로 활동했다. 《보이지 않는 힘으로부터》(2018, 갤러리 빙), 《붉은 덩어리》(2019, CICA 미술관), 《Wallow》(2020, 쇼앤텔) 등의 개인전을 비롯해 3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한승민은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 언어를 평면 회화 작업으로 표현한다. 작업 초기에는 식물도감, 신화, 만화 등 다양한 레퍼런스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을 제작하였고 최근에는 그가 직접 경험하는 일상의 경험을 이미지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의 작품의 특징은 위트 있고 개성 있게 캐릭터화된 이미지들과 더불어 화면을 구성하는 검은 선, 분할된 면 그리고 다채로운 색의 조화에 있다. 화면의 색상은 화려하지만

전체적으로 낮은 채도를 유지하는데 마치 다양한 색, 면과 선으로 혼합되어 색면 추상을 보는 듯하다. 작품 제작 방법에 있어서 초반의 정확한 형태와 선에 대한 강박적 표현은 점차 연필과 색연필의 드로잉 위에 채색의 번짐을 수용한 회화적인 기법으로 변화되었다. 최근에는 콜라주를 이용해 변형된 캔버스에 면의 확장과 분할 그리고 추상적인 기하학적 이미지를 구성하며 계속해서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자신의 표현력을 확장하고 있다.

에필로그

반갑습니다!

저희는 유소윤, 손혜민, 신현진으로 이루어진 콜렉티브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입니다.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은 비인간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공동체, 공동체와 공동체 등 여러 관계 속의 협업에 기반한 예술적 실천을 ‘사회적 발효’라는 개념으로 확장합니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시각예술, 퍼포먼스, 요리, 글쓰기, 구술역사 등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작업합니다.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은 《스테레오 비전》에 여러분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참여합니다. 여기서 저희는 각 팀의 협업, 공동 창작 과정, 개개인의 변화와 이동을 기록하고, 이 과정에 대한 사유를 글쓰기를 통해 구현하고자 합니다. 해석과 매개가 강조된 아카이브를 남겨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스테레오 비전》이 진행되는 기간 저희는 워크숍에 참여하기도 하고 직접 이끌어가기도 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발효를 사회적인 작용으로 확장하는 작업을 해오면서 ‘육감(六感, 肉感)’이라 할 수 있는 감각과 꾸준히 마주해왔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으면 좋은 손맛이 안 난다”는 이모님의 말씀을 직접 겪어보았을 때, 나쁜 곰팡이 사이에서 좋은 곰팡이를 구별해야 했을 때,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삼을 캐러 산으로 들어가는 심마니 할아버님을 만났을 때, 육감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또 흐리며 다양한 형태로 드러났어요.

저희가 마주했던 육감은 실제적 경험, 촉, 개인적이고 직관적인,

내장에서 끓어오르는 듯한 묘한 감정인 ‘gut feeling’이 혼합되어 특정한 현실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어 가게 해주는 믿음 체계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이 감각을 접하고 작업 안에서 작동시키기도 하며 “우리는 모두 어떠한 형태의 육감을 발휘하며 이 알다가도 모를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질문하기 시작했고, “결국 모두 각자의 육감으로 자신과 타자에 대해 알아가고, 그에 따른 실천으로 얇을 굳게 다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육감과 육감이 모이고 그것이 섞이기 시작한다면?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 또한 각자의 육감을 발휘해 협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협업의 과정에서 서로의 감각과 촉, 육감의 충돌은 매우 잦습니다. 대화, 교환, 내적 갈등, 외적 갈등, 아무말, 혹은 쌈박질을 거치며 부딪히고 섞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관계가 끊임없이 변하고 또 다른 육감이 탄생하기도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저희는 이제 서로 처음 만나 워크숍을 함께할 운명 앞에 놓인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당신은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지금까지 육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상적인 몸의 감각과는 거리가 멀지만, 직관이나 촉, 믿음의 형태로 견고히 존재하고, 지극히 내적인 의식 세계에서 미지의 세계를 감지하는 힘 말이죠. 당신에게 그 여섯 번째 감각은 무엇일까요? 그 감각은 주로 언제 어떻게 발휘되었나요?

지난 시간 동안의 자신을 천천히 되돌아보며, 그 감각과 관련된 순간에 대해 묘사해 주세요.

- 당신은 졸린 눈을 비비며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딩동! 대문을 열어보니 감바리싸라고 하는 존재가 서 있어요(왜 감바리싸라고 불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과연 누구일까… 도무지 감이 안 잡힙니다. 감바리싸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는 어떻게 생겼고, 얼마나 크고 어떤 색을 가졌고,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떤 냄새를 가졌고, 어떻게 숨 쉬나요? (살아있나요?) 가능한 한 자세히 묘사해 주세요. 그리고 그를 마주했을 때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 당신은 당신 앞에 있는 감바리싸와 함께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어떻게 관계를 맺으려 할까요? 그것은 어떤 관계가 되기 위한 것일까요? 그와 친하게 지내기로 결심했다면, 어떻게 서로에 대해 알아갈 것인가요? 당신의 육감은 여기서 어떻게 요긴하게 쓰일까요?

이민경

옛날 옛날에 아무 존재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짠, 무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샌가 무엇도 살지 않는 날이 왔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 다시 누군가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들은 사람에게 드는 기분은 육감을 통한 것일까요, 선입견을 통한 것일까요?

조영주

뚱뚱하고, 헹크러진 머리에, 별거 벗었고, 온 몸엔 털이 수북이 자랐고, 손가락 마디가 굽고요… 어느 동화책에서 본 사람들이에요. 규칙을 잘 지키고,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고 살던 쌍동이 자매가 책 한 권을 선물 받아요. 그 책에 빠져서 매일 그 두 자매는 책을 읽고 또 읽다가 그만, 그 책에 나오는 종족으로 변하죠. 날씬하고, 머리도 단정히 땋고, 반양말을 늘 신고 다니던 두 자매는 위에 묘사한 것처럼 형편없는 모습으로 변해요. 그리고 행복해 집니다. 제 멋대로 생활하고, 남의 시선은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들의 부모는 곧 그들과 함께 그 종족으로 변하고자 결심하고 그렇게 되어 네 식구는 세상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감바리싸는 그 종족의 한 사람일 겁니다. 당황스럽지만, 저는 어느 날 아침 우리집에 찾아올거라는 것을 예전했을 거고요.

내가 두려워하기도, 동경하기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감바리싸와 그의 종족들… 좀 더 그를 알아가기 위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의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통해 내 삶을 비춰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겠죠. 언제나 이민을 상상하고, 작가로서가 아닌 다른 삶을 구상해보며 현재를 의심하고, 재정비하는 것처럼 감바리싸는 또 다른 출구의 안내자가 되겠죠. 이상하게도 감바리싸는 만나기 그 이전부터 '괜찮은 존재'라는 직감이 있었죠. 그리고 나 자신을 투명하게 하여 마주할 수도 있는 존재이고요.

한승민

안경을 쓴 남자가 서 있다. 키는 나보다 더 크고 갈색 짐퍼에 회색 바지를 입고 있다. 머리는 꽂개 등껍질 머리를 하고 있고 사람 말을 한다. 냄새는 무취. 살아 있는 사람이며 그 사람을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낯선 감정이 든다.

김은설

감바리싸는 살아있지 않은데 살아있다. 냄새는 안 나고 지금 그 공간에 있는 냄새 밖에 없다. 자연에 있으면 풀 냄새, 나무 냄새 등이 나고 방에 있으면 방에 베어 있는 냄새가 난다. 감바리싸는 눈빛이 있는데 눈알은 없다. 어디를 쳐다보는지 모르는 눈이다. 눈만 바라봐도 감바리싸가 모든 것을 아는 느낌이 든다. 보통 성인 크기에 한없이 가벼우면서 무거워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다. 감바리싸는 전형적인 사람 피부가 아닌 플라스틱 혹은 금속 피부를 하고 있다. 감바리싸는 움직임이 없다. 땅을 딛고 있지 않고 허공에 떠 있어서 걷는지 안 걷는지 구별할 수 없다.

감바리싸와 말없이 서로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 감바리싸는 모든 것을 눈빛과 공기가 말해준다. 나 또한 감바리싸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었다.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아도 알기에 친해질 필요 없고 알아갈 필요가 없다. 감바리싸는 공기처럼 언제, 어디서, 무엇이든 나와 함께 있다. 필요하면 구름같이 나타날 수 있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감바리싸는 공기처럼 조용히 있기 때문이다.

전보경

가무잡잡하고 크기는 50센티미터 정도. 서로의 언어가 통하지 않는 존재. 까만 커다란 눈망울 그리고 별름거리는 코. 두 발로 서는 것을 힘들어 하는 그런 작은 존재. 몸 전체는 털로 감싸져 있고, 그에게는 특유의 향이 난다. 나와는 다른 냄새이지만 강하지 않아서 무슨 냄새인지 정확히 표현은 어렵다. 오래 함께 있으면 그 체취가 나에게 전달될 것 같은… 그리고 심장은 나보다 훨씬 빨리 뛰며 몸의 온도도 나보다 높다. 자신이 다칠 것 같아 자신보다 큰 존재를 약간 두려워하지만, 그렇다고 호락호락 당하지 않을 다부진 체구이다. 소리는 거의 내지 않는다. 약간의 킁킁킁. 첫 만남이다 보니 경계가 있다. 멀리서 나를 바라본다. 하지만 나를 싫어하지는 않는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중이다. 내가 그를 보면서 그려는 것처럼. 심장의 두근거림이 여기까지 들린다. 매우 긴장하고 있나 보다. 그의 코가 별름거리기 시작한다.

그의 눈을 본다. 그가 나에게 적응 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바라볼 예정이다. 너무 뻣뻣하게 서 있는 것은 서로에게 힘들다. 거리를 두고, 편히 앉아서 가끔씩

바라보자. 내가 그가 싫다면 경계의 눈빛을 나도 모르게 보낼 것이고, 그러면 그도 알아채겠지. 서로가 없는 것처럼, 조금 멀찍이서 있어보자. 30분쯤 흐르면 공간과 서로의 냄새와 서로의 소리에 익숙해질 것이다. 다시 한번 바라보자. 그가 나를 바라보고 있을까? 물론 나는 그를 무시하고 문을 닫거나 멀리 가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궁금하다. 그가 누구인지… 그도 내가 싫다면 자리를 떠나겠지. 그렇다면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일 것이다. 그가 나를 조금 기다린다면, 그것은 그에게도 나는 궁금한 존재일 것이다.

다시 30분쯤 지난다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거리가 가까워져도 불편하지 않다면 우리는 준비가 된 것 같다. 서로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일 준비를. 눈빛을 다시 한번 본다. 경계의 눈빛에서 좀더 편안한 눈빛으로 변했다면 이제 말 걸기의 차례인 것 같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것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신체이다. 내 신체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 손부터 시작해보자. 살짝 다가가 서로의 손이 닿는다. 온도와 온도가 만난다. 나의 온도와 그의 온도가 같아진다.

정지혜

감바리싸는 보자기 형태의 짐을 바리바리 싸 들고 다닙니다. 그런 모습으로 다니다 보니 감바리싸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김바리싸는 15센티미터 정도의 하얀색의 몸, 새카만 눈을 가지고 있고 뺨빼하지만 따갑지는 않은 갈색 털이 있습니다. 감바리싸는 여러가지 말을 다 할 줄 압니다. 여러가지로 초인적인 생물체이지요. 지금은 한국에 사는

나를 만났기 때문에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감바리싸는 작은 체구이지만 자기 몸보다 한 5배 큰 색색의 보자기를 이고 지고 다닙니다. 이 보자기들은 여기저기서 받은 천들인데, 벼려진 옷가지이기도 하고 어느 집의 커튼이기도 했습니다. 더이상 사용되지 않는 천들이지만 아주 깨끗해요. 그 안에는 여러가지 물건들이 들어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감바리싸가 이렇게 다양한 물건들을 가지고 다녀도 '무취'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아요. 감바리싸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습니다. 무거운 물건들을 다 가지고 다녀도 힘든 기색이 없습니다. 좋은 물건을 찾으려고 킁킁거리긴 해도 전혀 거슬리지 않죠. 감바리싸를 처음 봤을 때 전 보따리들만 보였어요. 그래서 선물이 배달된 줄 알고 문을 열어 줬거든요. 그런데 감바리싸가 말을 걸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게 뭐지?' 했습니다.

박찬별

만화같고 꿈같은 빛의 생명체였길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를 만나러 온 요정이랄까. 그 존재가 다른 형태라면, 우선 좋고 싶음이 첫인상에서 갈리겠죠. 낯가림이 심하다면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고, 저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친근한 느낌의 누군가라면 다가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빛이라면 다가가서 혼자 말을 하듯 교감을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손명희

산책을 권하는 감바리싸와 함께 한강공원으로 향한다. 아무

냄새도 소리도 없는 그(혹은 그녀) 옆을 나란히 걷는다.
눈앞의 실체가 적어도 살아있는 인간 존재임을 믿어보기로
한다. 한낮의 햇살이 너른 운동장을 반사하고, 굴절된 빛이
우리 몸을 비추자, 감바리싸의 헐겁고 긴 몸이 천천히
움직인다. 곧, 놀라운 그루브를 타기 시작한다. 희미하던
초점이 선명해진다.

나는 아마 친구가 되려고 한다. 우리는 여전히 말이
없다. 함께 춤을 추는 동안 드디어 숨소리를 들었다. 낮고
고요하게 흐르는 감바리싸의 리듬에 들어가 본다. 인간의
살 냄새도 난다. 어쩐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다. 이 친구는 내게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온 거다. 육감은
몸짓에 숨어있다.

김하경

김하경, 30세(감바리싸 목격자)

혼자 사는 우리 집에 초인종을 누르는 존재는 지금까지
100%의 확률로 헬멧을 쓴 존재들이었어요. 감바리싸씨
역시나 헬멧을 쓴 존재인데 본인의 신상을 굳이 밝히는 걸
보니 무엇인가 물어볼 것이 있거나 어떤 상황에 문제가
생겼다는 느낌이 들었죠. 왜냐면 보통의 경우 그들과
나는 서로 대화를 나누는 관계가 전혀 아니거든요. 평균의
체격에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잘 모르겠고… 소리를
내는데 헬멧 때문에 못 들은 건지 아님 아무 소리도 안
낸 건지 잘 모르겠네요. 땀 냄새가 났던 거 같은데 사실
직접 맡았다가 보다 이 더운 날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5층
집까지 헬멧을 쓰고 올라왔다 생각하니 그런 냄새가 났을
거야—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날 보안여관 지하 2층에서 팀 회의 때문에 6
명이 모였는데 모두 감바리싸씨를 알고 있네요? 그런 결
보니 아마 제가 하는 일과 관련된 존재 같아요. 요즘 내가
작업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그래서 찾아온 것 같기도 하고.

감바리싸씨는 헬멧을 쓰고 있어 표정을 전혀 읽을
수가 없어요. 마치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가오나시라는 캐릭터 같아요. 자기 목소리도, 얼굴도 없는.
영화에서 가오나시는 금을 만들어 사람들을 혼혹하거나
잡아먹어 공포를 주는데, 주인공은 처음부터 혼혹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주인공은 어떻게 격앙된 가오나시를
진정시키는지도 잘 알더라고요. 아마 그 방법을 육감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나와 감바리싸씨 사이에서도 그런
육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환

사람 키만한 원뿔형식의 모양에서 끊임없이 점성의 오물이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눈과 입이 달린 것처럼 보인다.
다리는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물의 흔적을 보아 그가
움직여서 이곳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역한 냄새와
괴기한 모습에 놀라 문을 닫아버리고 싶었지만 떨리는
불안한 목소리로 도와달라고 자신을 절실하게 숨겨달라고
한다. 그 감정이 느껴져 난감하다. 집으로 들여보내고
흔적과 향기를 지운다. 최대한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싶지만
냄새에 비위가 약해 난감하다. 일단 씻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감사하다고 욕실로 들어간다. 그는 무슨 사연이
있고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궁금하다. 무언가 새로운
존재와 신비의 느낌에 두려움을 동반하며 그가 욕실에 있는

동안 실시간 뉴스와 외계인에 대하여 검색한다.

최일준

초인종이 울렸다. 3일 전 주문한 1.5L 삼다수 6병이 이제서야 도착했다는 생각을 하며 의심 없이 문을 열었다. 물병들 대신 감바리싸가 서있었다. 그가 감바리싸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잘 몰랐지만, 그는 분명 감바리싸였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항상 '카더라' 수다를 떠는 양 옆집 아주머니의 대화를 들어왔어서일까. 아무튼 그는 분명 감바리싸였다. 190cm는 되어 보이는 큰 키, 골무처럼 짧은 비니를 쓴 머리 사이로 검은 머리카락과 하얀 새치들이 보였고, 눈꼬리가 처진 파란빛의 큰 눈, 날렵한 코와 두툼한 입술, 큰 키에 비해 유독 짧은 팔.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말을 꼭 두 번 반복해서 말하는 그의 버릇이 감바리싸임을 확실하게 했다.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집안 꼴이 엉망이었던 탓에 감바리싸를 집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불편했지만, 내가 어떤 말을 할 새 없이 감바리싸는 그의 큰 신발을 양 발 뒤꿈치를 차며 톡톡 벗고 집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다. 어젯밤 오랜만에 친구들이 놀러 왔었는데 집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갔다며 들릴 듯 말 듯 구구절절한 변명을 늘어놓는 사이 감바리싸는 능숙하게 전기 선들을 찾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전기 선이 다시 자랐나요? 언제부터 전기 선이 다시 자랐나요?"

그는 큰 키에 비해 야무진 손으로 전등,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TV 등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자라난 전기

선들을 잘라내며 말하였다.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저기, 집에 물이 없어서 그런데 주스라도 드시겠어요?"

"아니요 펜찮습니다. 아니요 펜찮습니다. 그보다, 그보다 붉은 전기 선이 자라면, 붉은 전기 선이 자라면 이 번호로, 이 번호로 연락 한번 주시겠어요? 연락 한번 주시겠어요?"

나는 그의 명함을 받아 소중히 보관하는 척하였다.

"네 그럴게요."

조금 열린 창문을 통해 산들바람이 불면서 그에게서 금속과 고무가 섞인 시큼한 냄새가 풍겼다. 그가 돌아간 후로도 몇 시간 동안 그 냄새가 코에 맴돌았다. 그 냄새를 완전히 잊을 때쯤엔 웬지 감바리싸가 한 번 더 초인종을 누를 것 같았다.

우리가 함께 만든 공간에 놓인 감바리싸는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앞으로 감바리싸의 행방은?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

장애·비장애 예술인 공동 창작 워크숍

스테레오 비전 STEREO VISION

주최·주관 서울문화재단

총괄 남미진(창작기반본부장),

이승주(잠실창작스튜디오 매니저)

운영 최영한, 김수현

협력 금천예술공장, 서울무용센터,

신당창작아케이드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이미지의

저작권은 해당 저자와 작가,

서울문화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글과

이미지를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울문화재단



WE ARE LINKED

길이 있는 가치

워크숍

참여 작가 김은설, 김하경, 김환, 박찬별, 손명희,

윤지영, 이민경, 전보경, 정지혜,

조영주, 최일준, 한승민

기획 송고은

자문 정경희

문자 통역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전주연

영상 함정식

전시

기획 송고은

기획 보조 오다인

공간 디자인 및 조성 아워레이보

그래픽 디자인 일상의실천

사진 타별

일시 2020년 10월 16일 ~ 2020년 11월 4일

장소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출판

발행 서울문화재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sfac.or.kr

발행인 김종휘

발행일 2020년 11월

글쓴이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

(손혜민, 신현진, 유소윤), 송고은,

오다인, 이한범

편집 이한범

번역 서울리딩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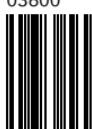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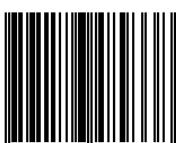
디자인 일상의실천

인쇄 퍼스트경일

ISBN 979-11-86489-33-8

비매품/무료

03600



9 791186 489338